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변화
최근 변액보험의 성장요인 분석과 시사점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2004년도 보험상품 판매현황 분석
자산운용업의 규제완화 방안 마련
2004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자동차보험상품 규제완화 추진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보험금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 해외보험 동향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변화	1
최근 변액보험의 성장요인 분석과 시사점	10
보험산업 개관	19
보험산업 환경	22
1. 해외 경제	22
2. 국내 경제	24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26
보험지표 동향	28
1. 보험산업 총괄	28
2. 생명보험	31
3. 손해보험	42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53
1. 2004년도 보험상품 판매현황 분석	53
2. 자산운용업의 규제완화 방안 마련	61
3. 2004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67
4. 자동차보험상품 규제완화 추진	69
5.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보험금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72
해외보험 동향	74
1. 미국 동향	74
2. EU 동향	80
3. 일본 동향	83
통계표	93

테 마 진 단

◆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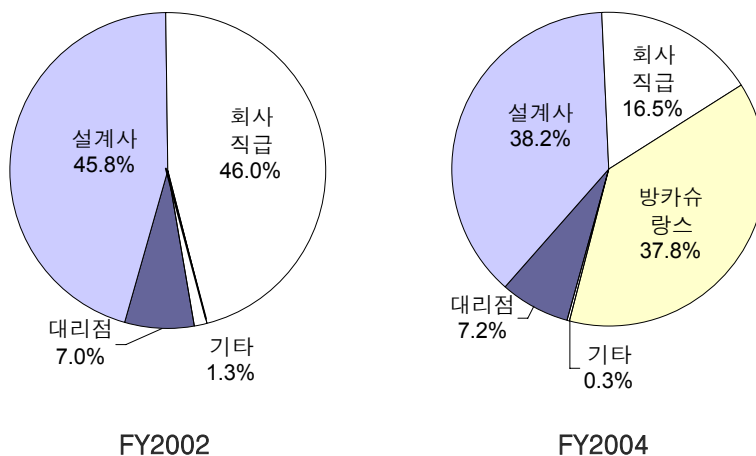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1.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판매채널의 구성

방카슈랑스는 도입과 더불어 단기간에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및 판매채널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 바 이러한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카슈랑스는 2003년 9월 도입과 더불어 생명보험 상품의 주요 판매 창구로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판매 채널의 구성에 큰 변화를 야기함.
- 방카슈랑스는 모든 보험료가 초회보험료의 형태로 일시에 납입되는 일시납 상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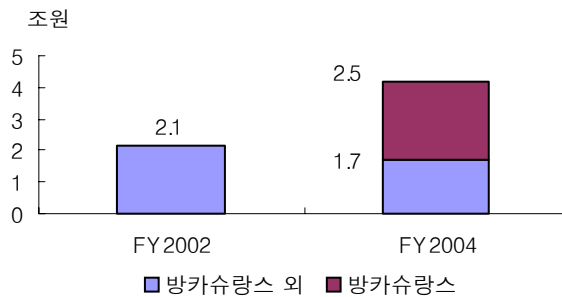
<그림 1> 방카슈랑스 전후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보험동향 2005년 여름호

- <그림 1>과 같이 FY2004 초회보험료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통적인 주력 채널인 설계사 조직과 대등해지면서 주력 판매채널로 정착하고 있음.
- 특히,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의 경우 전체 초회보험료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기존 채널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방카슈랑스 도입 이전인 FY2002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약 2조 1,385억원이었으나 도입 이후인 FY2004에는 4조 2,064억원으로 큰 폭 증가함.
 - 특히, 그 중 2조 5,289억원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거수되었으며 기타 채널을 통한 초회보험료 1조 6,775억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방카슈랑스 도입 이전보다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남.

<그림 2>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 채널별 구성비(초회보험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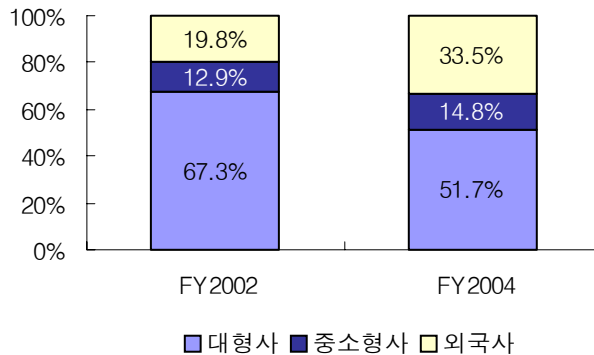


- 외국계 보험회사¹⁾들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체 시장에서의 M/S를 크게 확대시킴.
- FY2004 방카슈랑스를 통한 초회보험료 중에서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과반이 넘는 56.3%(대형사 27.0%, 중소형사 16.7%²⁾)를 점유하고 있음.
 - 이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은행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1) 본 보고서에서 외국계 보험회사는 ING, PCA, 프랑스, 메트라이프, AIG, SH&C, 푸르덴셜, 알리안츠, 뉴욕, 라이나, 카디프를 포함함.
- 2) 대형사는 삼성, 대한, 교보를 포함하며 중소형사는 흥국, 녹십자, 동부, 금호, SK, 럭키, 신한, KB, 동양을 포함함.

-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주요 판매채널로 등장한 방카슈랑스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전체 초회보험료 M/S에서도 그 비중을 크게 확대시킴.

<그림 3>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점유율(초회보험료 기준)



- 본 보고서는 방카슈랑스 채널 자체의 변화보다는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더불어 다른 판매채널 즉 설계사, 대리점 등 전통 채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방카슈랑스 이후의 판매채널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함.
-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생명보험³⁾ 초회보험료 실적을 방카슈랑스 도입 이전 (FY2002)과 도입 이후(FY2004)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방카슈랑스가 판매채널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함.
 - 단체보험, 퇴직보험 등은 수입보험료의 규모가 불안정한 추이를 가지고 있고 계절 성까지 심하게 나타나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분석대상 종목은 개인생명보험(사망, 생존, 생사혼합, 변액)에 국한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는 사망보험은 그대로 사망보험으로 한 반면,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은 모두 합산하여 편의상 저축성 보험으로 정의하였음⁴⁾.

3) 본 보고서에서 개인생명보험은 개인생명보험 일반계정과 변액연금을 포함한 개념임.

4) 변액에는 사망보험에 해당하는 변액종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분류상 어려움으로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 다른 변액보험과 함께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함.

2.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전통 채널의 변화 (1)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전통채널을 이용한 사망보험 판매를 확대한 반면, 외국사는 방카슈랑스에 집중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전통채널의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설계사 및 대리점(이하 전통채널)을 통해 거수된 초회보험료는 거의 성장하지 못하면서 방카슈랑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 FY2004 개인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방카슈랑스에 힘입어 5조 5,101억에 이르면서 FY2002의 2조 9,688억원 대비 85.6%나 증가함.
 - 반면, 전통채널을 통해 거수된 초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4.3% 증가하는데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나타냄.
 - 이러한 성장도 사망보험(11.3%)에 의존한 것으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오히려 0.5%의 감소를 나타냄.
- 전통채널의 통한 개인생명보험의 초회보험료 추이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나누어 파악해보면 상호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전통채널을 통한 개인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대형사 증가(14.3%), 중소형사 정체(2.4%), 외국사 감소(-27.8%)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외국사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더불어 전통채널을 통한 판매에는 주력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사망보험에서 초회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외국사는 감소하였고, 중소형사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냄.
 - 대형사는 전체적으로 전통채널을 통해 사망보험의 판매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중소형사는 전통채널을 통해 사망보험 판매에 집중한 반면, 방카슈랑스의 점유율이 높은 저축성보험에서의 판매실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 외국사의 경우 중소형사와는 반대로 사망보험 초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전통채널을 통한 초회보험료 거수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표 1>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회사그룹별 전통채널 변화(1)

(단위 : 십억원, %)

	사망보험	저축성보험 (생존+생사혼합+변액)	합 계	변화 특징
대형사	928 (23.5)	1,221 (8.2)	2,149 (14.3)	사망확대, 저축성유지
중소형사	233 (68.2)	159 (-34.9)	392 (2.4)	사망확대, 저축성축소
외국사	120 (-53.9)	288 (-5.3)	408 (-27.8)	사망축소, 저축성유지
전체	1,281 (11.3)	1,668 (-0.5)	2,949 (4.3)	

주 : 1) FY2004 초회보험료 기준임.

2) ()는 FY2002 대비 성장률임.

-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전통채널을 통해 사망보험의 판매 확대에 주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사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의 판매에 주력하면서 사망보험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3.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전통 채널의 변화 (2)

중소형사와 외국사에 대한 분류를 방카슈랑스의 활용정도에 따라 세분해서 초회보험료 변화를 파악해본 결과, 외국사의 경우 전통채널 활용에 있어서 상호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에 대한 참여정도를 감안한 보다 세부적인 분류에 기초하여 방카슈랑스 이후 보험회사의 형태 변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외국사와 중소형사를 각각 방카슈랑스 중심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으며 그 기준은 FY2004 초회보험료에서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가 여부임.
- 이러한 분류는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했느냐에 따라 전통채널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임.

□ 중소형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중심형 여부에 따라 전통 채널의 반응에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외국사의 경우는 양자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중소형사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도입 이후 방카슈랑스 활용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 적으로 전통채널을 이용한 사망보험의 확대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중심형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전통채널에 의한 저축성보험 판매는 크게 확대된 반면, 사망보험의 초회보험료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타 외국 사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방카슈랑스 중심형이 아닌 기타 외국사의 경우 전통채널을 통한 사망 및 저축성 보험의 초회보험료 거수가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회사별로 실적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⁵⁾.

<표 2>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회사그룹별 전통채널 변화(2)

(단위 : 십억원)

구분				변화 특징
	사망보험	저축성보험 (생존+생사혼합+변액)	합 계	
대형사	928 (23.5)	1,221 (8.2)	2,149 (14.3)	사망확대, 저축성유지
방카중심형 중소형사	84 (40.3)	77 (-34.4)	160 (-9.2)	사망집중, 저축성축소
기타 중소형사	149 (89.3)	82 (-35.3)	232 (12.2)	사망집중, 저축성축소
방카중심형 외국사	81 (-62.0)	206 (48.3)	287 (-18.5)	사망축소, 저축성확대
기타 외국사	39 (-18.0)	82 (-50.5)	121 (-43.1)	사망축소, 저축성축소
전체	1,281 (11.3)	1,668 (-0.5)	2,949 (4.3)	

주 : 1) FY2004 초회보험료 기준임.

2) ()는 FY2002 대비 성장률임.

5) 기타 외국사의 경우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모두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으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마다 다른 특징이 나타났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전통채널 상품 변화

+ ↑ 사 망 보 험 ↓ -	방카중심 중소형사 기타 중소형	대형사	
	기타 외국사		방카중심 외국사
	- ←	생존, 생사혼합, 변액	→ +

□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중소형사는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외국사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M/S를 크게 확대했음.

○ 사망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중소형사의 비중이 FY2002 11.6%에서 FY2004에는 17.9%로 확대되었음.

- 같은 기간 대형사의 비중은 64.9%에서 71.7%로 확대되었으며 외국사의 비중은 23.6%에서 10.4%로 크게 감소하였음.

○ 저축성 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비중이 FY2002 17.2%에서 FY2004에는 40.7%로 확대되었음.

- 같은 기간 대형사의 비중은 68.9%에서 45.5%로 감소했으며 중소형사의 비중은 13.9%에서 13.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따라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초회보험료에서 대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4. 시사점

방카슈랑스 도입과 더불어 국내사와 외국사 사이에 시장이 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있으며, 향후 일시납 상품의 안정적 정착, 변액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영향력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방카슈랑스 도입과 더불어 국내사와 외국사 사이에 시장이 특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 다수의 외국사들은 방카슈랑스 활용을 통해 저축성 보험 중심의 M/S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국내사의 경우는 전통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M/S를 고수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됨.
- 방카슈랑스 도입이후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는 일시납 상품의 안정적 정착, 변액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영향력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임.
 -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은 대부분 일시납보험으로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의 부침이 클 가능성이 높음.
 - 2004년 12월 누계(3~12월)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서 거수된 초회보험료 중 일시납의 비중은 94.5%임.
 - 최근 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변액보험의 경우 대형사는 설계사 조직(86.8%)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외국사는 방카슈랑스(69.4%)를 이용하고 있어 양 채널 간의 경쟁력이 향후 변액보험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전통 채널에서도 최근 방카슈랑스 중심형 외국계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오히려 설계사의 수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외국계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M/S 확대가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도 높음.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 도입을 전후해서 설계사의 수를 감축시킨 반면 방카슈랑스 중심형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대조를 보임.

<표 3> 생명보험회사 설계사 수

(단위 : 명)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중심 외국사	전체
FY2002	87,436	34,877	28,783	10,578	151,096
FY2004	84,839	27,388	24,720	13,904	136,947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협』, 2003.5, 2005.5.

- 보험회사들은 각각의 역량과 주력 상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널 전략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많은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를 주 판매채널로 삼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반면, 국내사들의 경우 일부 은행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채널다변화의 차원에서 활용한 경우가 많았음.
 -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많은 국내 보험회사들은 전통 채널을 통해 사망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채널 전략은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지에 대한 상품 전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복잡한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설계사 및 대리점 등 전통채널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특약이 가미된 복잡한 형태의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채널의 유지 및 강화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력 상품의 설계를 가급적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함으로써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최근 변액보험의 성장요인 분석과 시사점

김진익 선임연구원

1. 서론

최근 변액보험의 급격한 성장은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변액보험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유럽사례와 비교, 시사점을 제시함.

- 2001년부터 발매하기 시작한 변액보험은 초기 판매부진에서 벗어나 2004년 대폭 성장함에 따라 보험산업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 국내 변액보험상품은 FY2001 수입보험료가 7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FY2002 2,000억 원에 육박한 후 FY2004 2조 3,000억원대로 큰 폭의 성장을 함.
 - 이러한 변액보험의 급성장은 최근 저금리의 지속 및 주식시장의 호조와 더불어 간접투자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 펀드시장의 활황에도 기인함.
 - 변액보험은 보험측면과 투자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금융상품으로서 저축성보험에서 IMF외환위기 후 보장성 보험으로 이어지는 성장축을 이어갈 신 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 2004년 4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본격 판매하기 시작한 적립식펀드도 증시호황과 맞물려 성장하면서 변액보험 등의 간접투자시장의 여건을 조성함.
 - 간접투자시장(collective investment market)의 성장과 병행한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은 변액보험의 펀드로서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간접투자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성숙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임.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변액보험시장이 간접투자시장의 한축으로 성숙한 유럽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사점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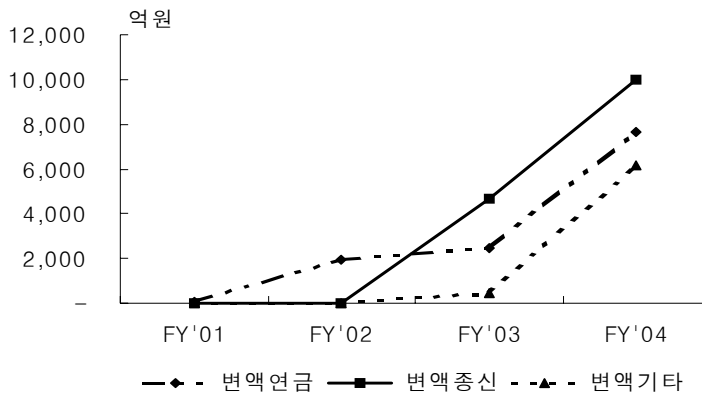
2. 국내 변액보험시장 성장요인

국내 변액보험시장은 간접투자시장의 구성과 주식시장의 호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에 적극 참여하고 기존 저축성 보험상품을 대체하면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됨.

□ 변액보험시장의 성장 추이

- 국내 변액보험은 도입이후 초기 전문판매인력의 부재, 금융시장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판매가 많지 않았음.
- 2001년 6월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이 실시되고 2001년 7월 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변액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2001년 12월말 변액보험 누적수입보험료는 약 28억원으로 판매가 저조했음.
- 그러나 FY2003에는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면서 FY2003 연간 7,621억원에 이르렀으며, FY2004 중반을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의 회복 등과 함께 2조 3,789억원을 달성하는 급격한 성장을 이룸.

<그림 1>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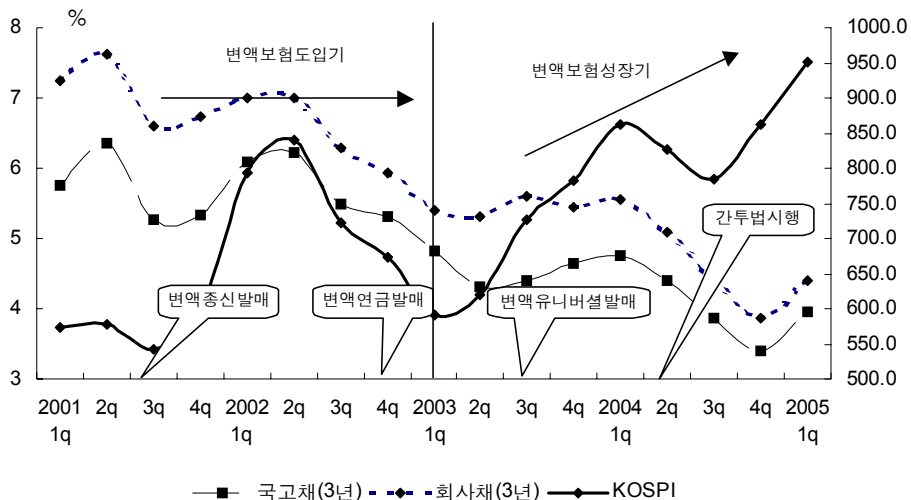
- 아래에서는 이러한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고 도입초기로서 한계점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함.

□ 변액보험시장 성장요인

① 주식시장의 호조

- 주식시장의 호조는 변액보험상품을 매력적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음.
 -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온 국내 금융시장의 저금리는 주가상승과 함께 펀드수요를 촉발, 변액보험성장에 기여함.
 - 또한 주가는 2003년 1분기부터 상승기조로 들어서면 2004년 1분기 평균 862.9p를 정점으로 한차례 하락했으나 2005년 1분기 952.0p를 지나 지속적으로 상승함.
 - 주식시장의 호조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적립식펀드 및 변액보험 등 개인들의 간접투자시장 참여를 촉발시키면서 급속히 펀드시장을 확대시킴.

<그림 2> 금융시장 지표 추이와 변액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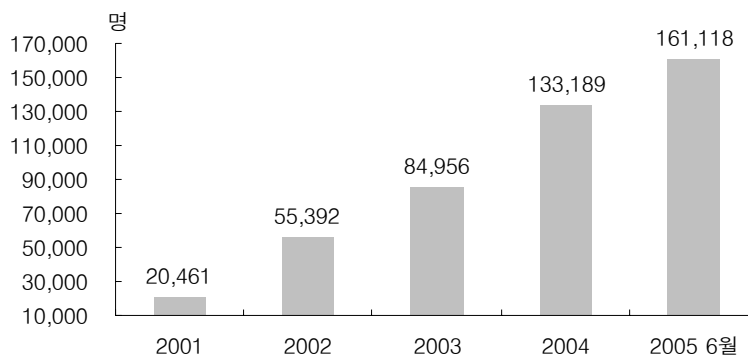


② 유자격 보험설계사의 증가

- 변액보험판매 자격을 획득한 보험설계사들의 지속적 증가와 고액상품인 변액보험의 판매선호 및 신상품중점판매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변액보험의 판매가 증가됨.

- 변액보험 판매자격합격자는 특히 2004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판매정책과 신상품 판매에 대한 관심증가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05년 5월 현재 설계사의 65%가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보유함.
- 향후 수익증권판매가 가능하고 교차판매 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무관리사로서의 변액보험성장에 기여가 예상됨.
- o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의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부족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수당축소움직임도 설계사의 판매의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림 3> 변액보험 판매자격자 추이(누적, 연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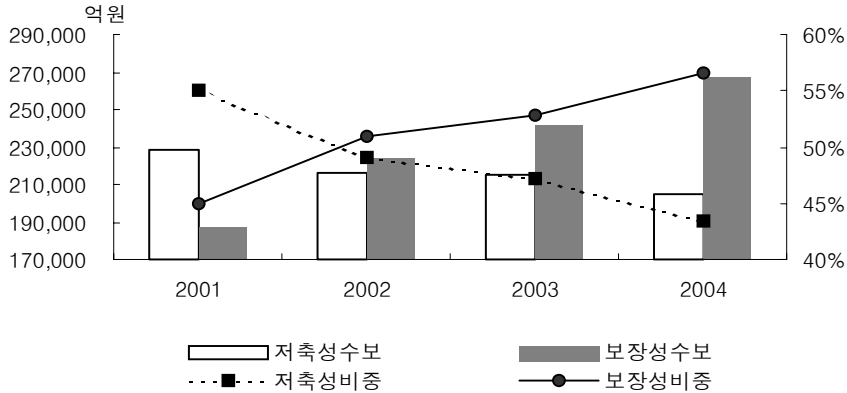


자료 :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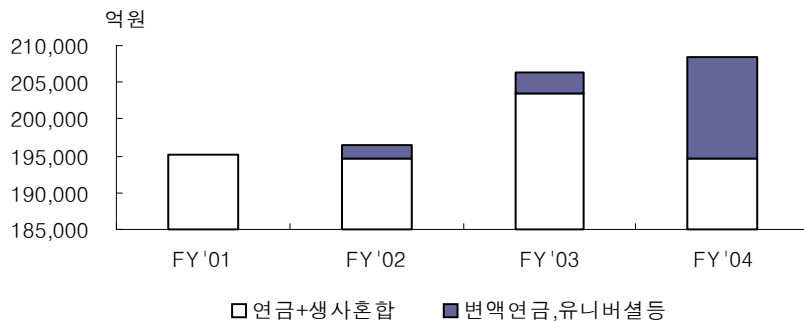
③ 보험연계 저축성상품의 대체성

- o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보험상품이 퇴조하고 있고 또한 세제혜택의 축소로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o 반면 국내에서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출시는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유리한 환경의 조성하고 함께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를 변액보험으로 유도하는 기폭제가 되었음.
- o FY2004 연금보험은 5.6%성장하였으나, 변액연금에 포함할 경우 10.1% 성장하고 생사혼합보험 또한 -15.7%의 감소세 심화에서 기타변액보험(주로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할 경우 -9.6%로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변액보험은 기존 저축성보험을 대체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4> 저축성/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그림 5>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 그러나 기존의 배당실적을 배분하는 저축성 보험을 대체하는 상품으로서의 변액보험은 향후 다른 저축성보험의 시장여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④ 세제혜택

- 2003년 12월 이후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기존 저축성보험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변액보험의 장기고수익투자기능은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향후에도 저축성보험, 적립식 펀드 등 변액보험과 대체성을 갖는 상품에 대한 세제의 변화가 변액보험의 시장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3. 유럽사례

유럽 변액보험의 성장에는 간접투자시장조성, 대체상품선호, 설계사마케팅, 상품대체성, 세제혜택, 방카슈랑스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적으로 재무, 운영, 규제리스크를 갖는 것으로 지적됨.

- 변액보험시장 경험의 성숙된 유럽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요인의 유사성과 리스크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변액보험판매 판매비중이 높은 유럽시장(평균 20%)의 분석⁶⁾에 의하면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에는 주식시장의 성장, 상품대체성, 연금제도의 개혁, 세제혜택, 방카슈랑스의 발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영국⁷⁾ 등의 경우는 전문적인 독립설계사에 의한 마케팅도 변액보험시장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변액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재무리스크, 운영리스크, 규제리스크 등이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할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유럽시장은 주식시장호조에 따른 성장, 상품대체성에 의한 성장, 설계사마케팅에 의한 수요견인 등 국내와 유사한 요인에 의해 성장했으며, 또한 국내와 달리 방카슈랑스, 연금제도 개혁 등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됨.
 - 유럽변액보험시장은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대체성을 갖는 배당보험에서 수요가 이동했으며, 독립설계사들의 전문적 컨설팅을 통한 마케팅, 세제혜택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를 보임.
 - 보험상품내 실적배당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상품으로 배당보험이 있으나 이는 모호성과 불투명성과 인해 운영의 투명성과 투자의 융통성을 갖는 변액보험이 대

6) Swiss Re, "Unit-linked life insurance in western Europe: regaining momentum?", *Sigma*, No. 3/2003, 2003.3.5.

7) Datamonitor, "UK Unit-Linked 2005", 2005.5.

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음.

-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보험중개인에 의한 변액보험판매는 고액변액보험판매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재무관리사로서의 능력을 갖춘 설계사를 통한 마케팅은 변액보험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 상품대체성과 세제혜택은 변액보험의 성장요인임과 동시에 다른 상품과의 경쟁여건 변화 및 규제변경에 의해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대체성은 배당보험 등의 여건개선에 따라서 변액보험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세제혜택도 변액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타금융상품의 세제혜택부여 등으로 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유럽의 경우, DC형으로의 기업연금개혁, 방카슈랑스의 발달 등이 변액보험의 기업 시장수요의 흡수와 전문적 판매채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됨.

<표 1> 유럽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요인

요 인	개 요	방 향
주식시장의 성장	- 주식투자비율이 높은 변액보험은 특성상 주가상승은 성장요인임.	↑
상품대체성	- 배당보험 등의 저축관련 보험상품	↓↑
독립재무관리사	- 전문적이고 변액보험의 판매에 관심을 갖는 재무관리사(FA)의 마케팅	↑
연금제도 개혁	- DB형에서 DC형 연금제도개혁은 변액연금에 영향을 줌.	↑
세제혜택	-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
방카슈랑스 발달	- 방카슈랑스 발달 여부는 은행상품과 유사점이 많은 변액보험판매에 영향을 줌.	↑

자료 : Swiss Re, "Unit-linked life insurance in western Europe: regaining momentum?", *Sigma*, No. 3/2003, 2003.3.5.

□ 변액보험은 복잡한 금융상품으로서 유럽의 경험에 의하면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음.

- 재무리스크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투자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게 되나 보험회사가 경쟁이 격화될수록 내재옵션이 포함된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이럴 경우 상당한 투자위험을 떠안게 됨.
- 이러한 보증부분에 대한 가격설정은 상당히 어려우며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할 경우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운영리스크 : 주식시장의 하락은 변액보험의 인기를 상당부분 감소시키면 변액보험의 인기하락은 단지 수입보험료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수수료감소도 가져옴.
- 규제리스크 : 생명보험산업은 특히 규제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변화는 수익과 이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세제혜택의 축소와 타금융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등에 따라 수요변화가 심할 수 있음.

4. 시사점

국내 변액보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의 투명하고 건전한 설계와 운영을 하면서 판매조작을 전문화시키는 한편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저축수요에 대한 대안적 충족수단으로서 배당보험의 활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시장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변액보험의 성장에는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단계로서의 방카슈랑스채널, 기업연금시장의 미성숙에 따른 차이점도 가지고 있음.
- 즉, 주식시장의 호조, 설계사마케팅 등 성장요인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방카슈랑스의 운용기간이 짧고 기업연금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등 비교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음.
- 급격히 성장한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요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액보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초기판매관행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설계사들의 전문성제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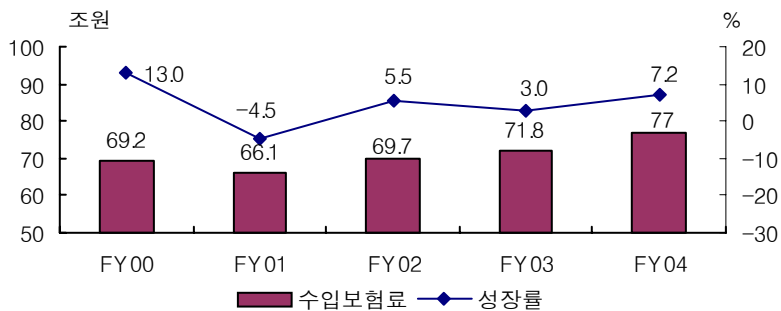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변액상품은 공시제도 등을 통해 투명성확보에 노력해 왔으나 상품상 복잡한 수수료체계와 보장성부분에 대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일부 설계사와 소비자에게 적립식 펀드와 혼돈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주식시장의 호조와 설계사마케팅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변액보험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 최근의 주가상승은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켜온 분명한 요인이나 또한 이러한 펀드성파가 투명하게 반영되어 공시되는 변액상품의 투명성과 융통성도 중요한 성장요인임.
 - 따라서, 보험회사는 향후 펀드운용에 있어 변액보험소비자들의 안정적이고 보수인 성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자산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상품설계와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융통성 강화를 통해 변액보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판매조직의 전문화와 종합리스크관리체계 구축 : 변액보험의 성장은 복합금융상품에 따른 전문적인 유통조직의 역할이 크므로 설계사들의 재무설계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함.
 - 또한 변액보험설계사교육과정과 판매과정의 불완전판매 등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변액보험상품의 신뢰를 확보해야함.
- 기존의 보수적인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배당보험의 활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의 성장은 기존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오던 저축성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음.
 -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과 연계한 저축성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변액보험상품은 위험이 높은 상품이며 보수적인 저축성 상품소비자들에 의해 성장의 한계를 가짐.
 - 따라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높이고 기존 저축성 상품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산을 관리하고 배당을 통해 성과를 배분하는 배당보험의 활성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보험산업 개관

FY2004 보험산업은 FY2001 이후 가장 높은 7.2%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4년 연속 경상GDP 성장률을 하회하면서 보험침투도는 9.9%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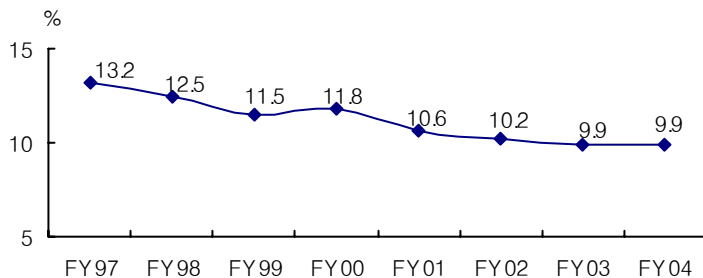
-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2% 성장한 76조 9,679억원으로 생명보험은 6.7%, 손해보험은 8.6% 성장함.

<그림 1>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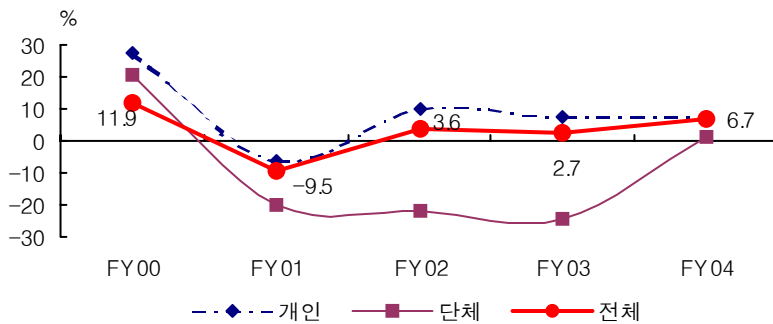
- FY2004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경상경제성장률 7.4%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험침투도 (수입보험료/경상GDP)는 FY1997 13.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보험침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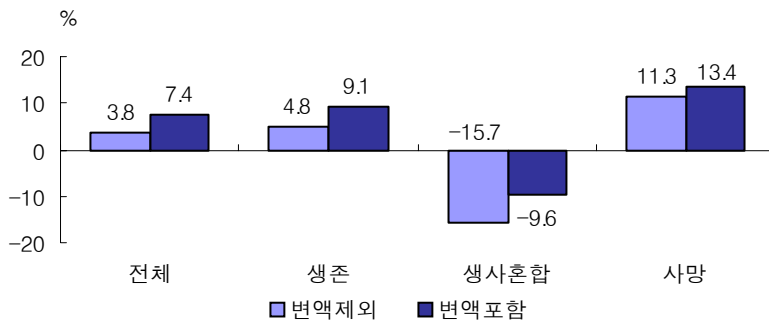


- FY200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 변액보험의 대폭 성장과 2005.4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수요 선반영으로 6.7% 성장함.
- 단체보험은 FY2000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FY2004 1.1% 소폭 성장으로 반전하였고, 변액보험은 주가 상승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여 개인보험 성장을 견인함.
- FY2004 개인보험 성장률은 7.4%로 나타나 변액보험을 제외한 성장률 3.8%와 3.6%p의 차이가 존재함.

<그림 3> 생명보험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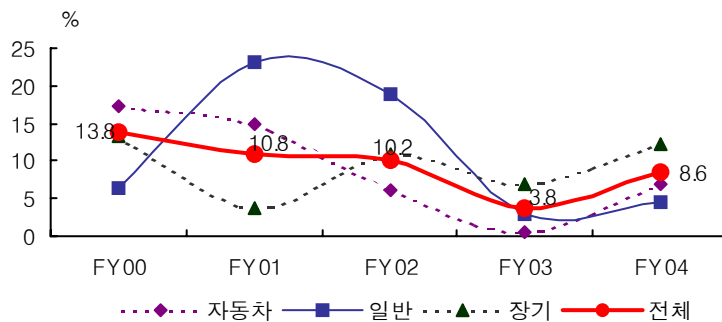
<그림 4> 개인보험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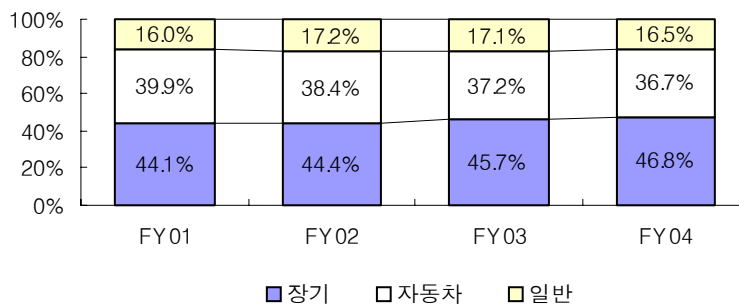
- 향후에도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은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단체보험의 성장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보험은 노후대비를 위한 사망보험이 증가하고 변액보험의 호조세가 예상되며,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성장세가 기대됨.

- FY2004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반면, 장기손해보험이 3년 연속 손해보험 전체 성장을 주도하면서 시장 구조가 가계성 장기보험으로 재편되는 추세임.
- 장기손해보험은 건강에 대한 수요 지속,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로 12.3% 성장하여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그림 4> 손해보험 성장률 추이



<그림 4>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 향후 손해보험 시장은 온라인채널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자동차보험 성장이 정체될 전망이다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꾸준한 수요 지속 전망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됨.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화재보험의 성장 회복 등에 기인하여 성장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5년 1/4분기에 들어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반면,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저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세계경제는 미국이 산업성장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회복하고 중국이 9%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기조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5년 1/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산업생산, 소매판매, 자본재수주(비국방부문)의 증가와 주택경기의 호조 등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7%의 비교적 높은 GDP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산업생산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인해 실업률은 2004년 1월 5.6%에서 2005년 5월말 현재 5.1%로 감소하였으나, ISM제조업지수가 2004년 5월 62.6에서 2005년 5월에는 51.4로 낮아지는 등 경기호조세 지속에 대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함.
- 중국은 운송과 통신 등의 성장과 함께 2005년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9.4%로써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들어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對中 수출의 둔화로 경제회복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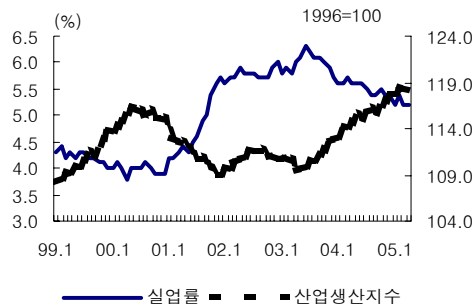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1/4
미 국	2.2	3.0	4.3	3.7
일 본	-0.3	1.4	2.7	1.2
중 국	8.0	9.1	9.0	9.4
EURO	0.5	2.0	2.0	1.3

주: GDP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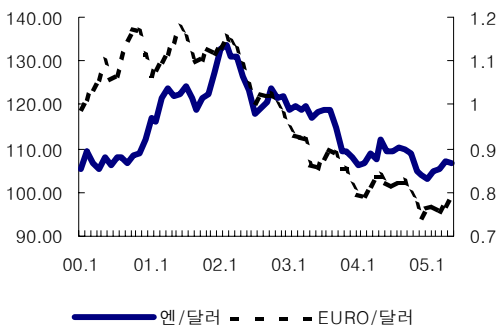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1> 미국의 생산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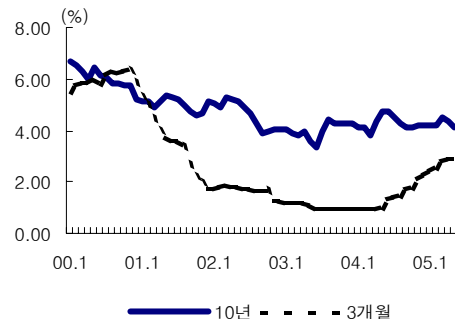
- 유로지역은 2005년 1/4분기에 GDP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둔화(1.5%→1.3%)되었으며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경기체감지수도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실업률도 9% 수준에 달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임.
-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2005년 3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달러화 가치는 상승세를 시현함.
- 美 연준이 2004년 6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
- 2005년 들어 인플레이션의 안정기조 유지 등으로 인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함(2005년 6월 7일 현재 3.91%).
- 美 달러화는 2004년 4/4분기에 무역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약세를 보였으나 2005년 들어 상대적인 경기호조와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임.
-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해 강세를 시현하였으며, 유로화에 대해서도 유로지역에 비해 양호한 경제상황과 EU헌법안 부결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강세를 시현하였음.
- 엔/달러와 달러/Euro는 2005년 1월 평균 각각 103.24, 1.31(Euro/달러 0.76)에서 5월에는 106.70, 1.27(Euro/달러 0.79)로 상승함.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기간 평균, 3월은 18일지표 사용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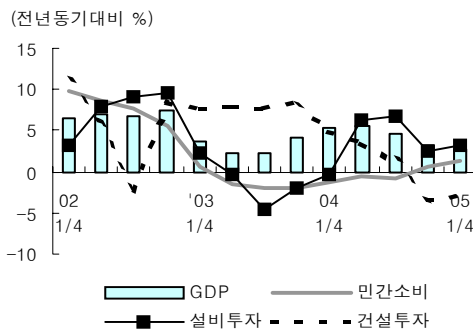
주: 기간 평균, 3월은 18일지표 사용
자료: FRB St. Luise

2.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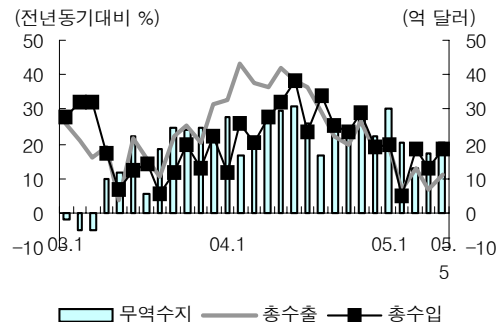
건설부문을 비롯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2005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기대치 이하를 나타냄.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저금리기조가 유지되었으나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가치는 여전히 상승세를 시현함.

- 2005년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데 그침.
 -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9%가 감소하였고 기계류 중심의 설비투자가 3.1% 증가하여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함.
 - 장기간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이 부진하였으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2005년 1/4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함.
- 환율하락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의 안정세에 힘입어 2005년 1~5월까지 1,130.7억불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으며,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1~5월까지 1,027.5억불을 기록함.
 - 1/4분기에 반도체(10.2%), 선박(86.7%), 자동차(20.0%), 일반기계(36.4%), 석유화학(35.3%), 철강(38.4%) 등의 수출은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며 호조세인 반면, 컴퓨터, 가전, 섬유류의 수출은 개도국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함.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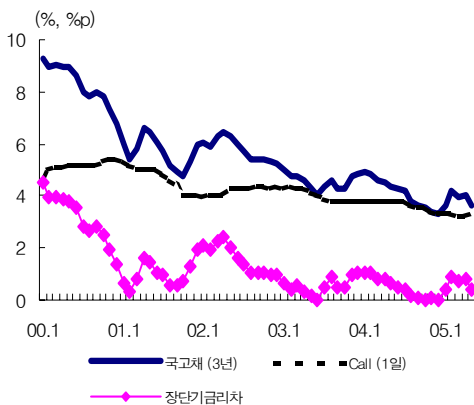


<그림 5> 대외 거래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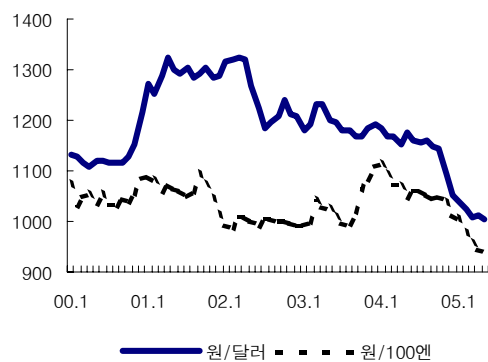
- 5월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8%가 증가한 233억불, 수입은 18.4%가 증가한 211.9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21.1억불의 흑자를 시현함.
- 국고채(3년) 수익률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저금리 기조 지속 기대로 인해 2005년 1월말 4.06%에서 2005년 5월말 3.67%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무역 흑자의 지속으로 원화가치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함.
- 장단기금리 차이의 감소로 인해 채권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6월 25일 한국은행과 재정부에서 국채발행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금리하락 추세가 제어되지 못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2004년 11월 이후 콜금리 운용목표를 3.25%에서 동결한 바 있으며, 이후부터 2005년 1/4분기까지 3.25%내외 수준을 유지함.
- 무역 흑자의 지속으로 원화가치는 2004년 11월 이후 달러 및 엔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세기조를 보이고 있음.
- 원/달러의 경우 무역흑자의 지속으로 인해 상승폭이 축소되어 2004년말 1,035.1원에서 2005년 5월 말 1,007.7원으로 하락함.
- 원/100엔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라 2004년말 1,009.3원에서 2005년 5월 말 928.2원으로 하락함.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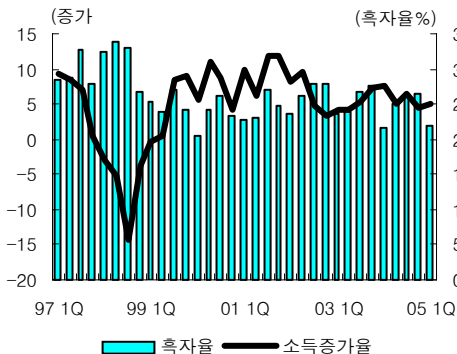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소득, 실업 등 변수들의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비자심리의 회복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움. 한편,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몰리는 반면 저금리의 지속으로 채권형 펀드의 자금이 크게 이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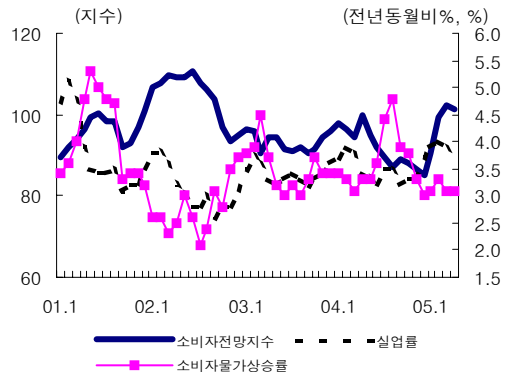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는 2005년 들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지연에 의해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4월에는 실업률이 3.6%로써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였음.
- 소비자전망지수는 2004년 12월 85.1까지 하락한 후 2005년 들어 3월에는 102.2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후 5월에는 다시 99.2를 기록함으로써 확실한 소비자심리의 회복여부는 불투명함.
-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2004년 4/4분기 4.4%에서 2005년 1/4분기에는 5.2%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조세 및 사회보장에 대한 비용 증가분을 제외한 경상가처분소득의 증가율도 3.2%에서 4.9%로 증가하였음.
- 2004년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불안정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1월에서 5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3.2%를 기록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임.

<그림 8> 소득, 흑자율 추이



주: 흑자율= 1-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통계청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통계청

- 2005년 1/4분기(FY2004 4/4분기)중 은행의 실세총예금이 감소한 반면,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 증가와 보험권에서는 변액보험의 수신금액이 크게 증가함.
- 은행권의 경우 저금리기조의 영향으로 예금 계정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된 반면, 신탁계정에서 약 1조원의 순유입이 발생함.
- 투신권의 경우 주식시장의 상승과 적립식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주식형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한 반면 저금리기조의 유지로 인해 채권형 펀드의 자금이 대거 이탈하였으며, MMF와 같은 단기상품의 인기가 높아짐.
-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손해보험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05년 1/4분기에 보험권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천억원의 자금유입이 증가함.
- 2005년에 들어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을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보험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3	CY2004					CY2005
	4/4	1/4	2/4	3/4	4/4	1/4	
보 험	88,743	48,649	64,808	71,449	94,002	55,643	
생명보험	74,824	37,604	48,549	54,862	75,500	42,277	
손해보험	13,919	11,045	16,259	16,587	18,502	13,366	
은 행	189,814	-67,109	37,239	-1,871	-28,410	-20,297	
일반계정	221,476	-11,707	40,699	19,734	-13,394	-30,494	
신탁계정	-31,662	-55,402	-3,460	-21,605	-15,016	10,197	
증 권	5,843	-5,145	5,049	-1,427	-11,172	16,898	
투 신	-178,020	170,435	-14,380	136,801	148,323	52,889	
중 금	-38,056	-20,816	7,090	940	-18,256	19,416	

주: 1) 보험회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4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건강관련 상품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투자형 및 저축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7.2%의 견조한 성장을 함.

- FY2004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전년 대비 7.2% 성장한 76조 9,679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의 증가와 특히 변액보험의 비약적 성장으로 개인보험이 증가하고 그동안 축소되던 단체보험이 성장세로 반전되면서 전년 대비 6.7%의 성장을 보임.
 - 손해보험은 건강보험증가에 기인한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일반손해보험도 특종보험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함으로써 8.6%의 성장을 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6.5	3.9	2.7	6.3	10.4	0.5	11.4	6.7
손해보험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57,171	232,173
	3.6	5.6	3.8	9.0	8.1	9.3	8.1	8.6
합 계	211,837	173,136	717,668	176,933	183,729	217,954	191,062	769,679
	5.7	4.4	3.0	7.1	9.7	2.9	10.4	7.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4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손해보험 15.0%, 생명보험 12.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8% 성장함.

- FY2004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자산이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감소, 12.8% 증가한 255조 818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211조 6,098억원으로 투자영업이익의 증가와 보험영업수지의 개선 및 준비금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2.9%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따른 준비금 증가와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5.0% 증가한 43조 4,720억원을 나타냄.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832,379	1,873,615	1,873,615	1,915,209	1,993,838	2,099,079	2,116,098	2,116,098
	5.2	2.3	14.1	2.2	4.1	5.3	0.8	12.9
손해보험	378,639	388,229	388,229	395,180	409,196	426,766	434,720	434,720
	2.4	9.8	9.8	1.8	3.5	4.3	1.9	15.0
합계	2,211,018	2,261,844	2,261,844	2,310,389	2,403,034	2,525,845	2,550,818	2,550,818
	4.7	2.3	13.3	2.1	4.0	5.1	1.0	12.8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FY2004 보험밀도(1인당 보험료)는 건강 및 변액보험 확대에 따른 수입보험료 성장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160만 1천원인 반면, 보험침투도는 전년과 동일한 9.9%를 나타냄.

- FY2004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면서 160만원을 상회하였으나, 보험침투도는 보험료 성장률이 경상GDP 성장률을 하회함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9.9%를 나타냄.
- FY2004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생명보험이 118만 8천원, 손해보험이 48만 3천원으로 생·손보 전체가 160만 1천원에 이르러 FY2003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FY2004 보험침투도는 9.9%로 FY1997 13.2%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0.1%p 감소한 6.9%를 시현함.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0.1% 증가한 3.0%를 시현함.

<표 3>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구분 \ 연도		FY1997	FY1998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1인당 보험료 (천원)	생보	1,065	1,002	1,003	1,113	1,000	1,030	1,053	1,118
	손보	347	305	308	349	395	433	447	483
	계	1,413	1,308	1,311	1,461	1,395	1,463	1,500	1,601
보험 침투도 (%)	생보	10.0	9.6	8.8	9.0	7.6	7.2	7.0	6.9
	손보	3.3	2.9	2.7	2.8	3.0	3.0	2.9	3.0
	계	13.2	12.5	11.5	11.8	10.6	10.2	9.9	9.9

주 : 1)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명목GDP임(2004년은 잠정치임).
 2) 한국은행의 GDP계산방식과 기준년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거수치를 변경함.
 3)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추계인구(2005년 1월 특별추계자료로 수정 보완)
 자료 : www.bok.or.kr(한국은행, 국내총생산) 및 www.nso.go.kr(통계청, 추계인구)

(동향분석팀)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4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53조 7,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의 견조한 성장을 함.
- 개인보험은 사망보험이 11.3% 증가하고 특히 변액보험이 212.2%나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4% 증가함.
- 단체보험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던 퇴직보험이 성장세로 반전,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세를 상쇄하면서 1.1%의 소폭 증가함.
- FY2004 총자산 규모는 211조 6,0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함.
- 투자영업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13.6%)하고 기타 수지의 적자가 감소(33.3%)하고 또한 준비금이 증가(11.8%)함에 기인하는 것임.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자 산	1,832,379	1,873,615	1,873,615	1,915,209	1,993,838	2,099,079	2,116,098	2,116,098
	5.2	2.3	14.1	2.2	4.1	5.3	0.8	12.9
수입보험료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6.5	3.9	2.7	6.3	10.4	0.5	11.4	6.7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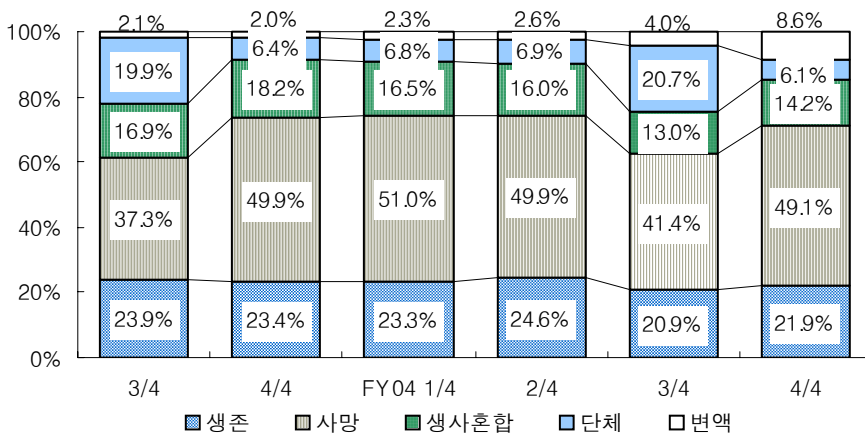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4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소폭 증가한 47.5%를 나타냈으며, 생존보험이 22.6%, 생사혼합보험 14.8%, 단체보험이 10.7%, 변액보험 4.4% 순으로 나타남.
- FY2004 생명보험은 노후대비 사망보험이 증가하고 저금리지속과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펀드시장의 활성화로 변액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사망보험은 CI보험과 건강관련보험 등 생존리스크를 대비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구성비가 2%p 증가, 중목 편중화가 심화됨.
 - 생존보험은 생존위험에 대비한 증가와 함께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일부가 변액보험으로 대체되면서 전통 생존보험 구성비는 소폭 감소함.
- FY2004 일반계정중 무배당 보험구성비는 전년보다 4.7%p 증가한 83.7%였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4.5%p 증가한 43.5%로 무배당화와 금리리스크전가가 심화됨.
 - 종신보험 비중은 일반계정의 25.1%로 전년 대비 2.6%p 증가했으며, 질병보험도 2.2%p 증가, 20.8%로 확대됨.
 - 본격적 투자형 상품이라 할 수 있는 변액유니버설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변액보험 중 25.9%를 차지했으며, 변액연금 42.0%, 변액종신이 32.1%를 차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48조 140억원이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7,366억원이었음.
- 사망보험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5조 5,338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면서 소폭 성장세를 회복함.
 - 이는 2005년 4월 표준이율인하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종신보험은 FY2002 93.8%, FY2003 24.5%, FY2004 15.3%로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감소했음.
 - 한편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FY2004 207.7% 성장하는 등 주가상승에 따라 종신보험의 일부 수요가 변액보험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 생존보험은 전년 대비 4.9% 성장한 12조 1,366억원의 저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속적인 성장감소를 나타냄.
 -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한 실적이 안정화되고 비과세 기간 연장에 따른 선수요에 따라 상대적으로 FY2004 보험료 성장이 상대적으로 감소함.
 - 반면, 변액연금금은 변액종신보험보다 출시가 늦었음에도 112.9% 성장, 1조원이 넘는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들여, 일부 생존보험수요가 변액보험화됨.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 대비 15.7% 감소한 7조 9,646억원의 실적을 보여 경쟁력 상실에 따른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변액유니버설이 펀드시장 성장과 증시상승에 따라 1300%대의 폭발적 성장을 함에 따라 이를 감안할 경우,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은 9.6%감소에 그침.
- 단체보험의 경우, FY2004 하반기 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전년 대비 1.1% 성장하는 성장반전이 일어나 전체 보험료성장에 기여함.
- 이는 퇴직보험의 감소세가 증가로 반전(4.4%)되고 일반단체보험 또한 감소세가 완화(6.2%)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기업마케팅강화와 경기회복조짐에 따른 것임.
- 상품별로는 건강보험이 전년 대비 81.1%의 높은 성장을 했으며 질병보험이 15.5%, 어린이보험이 8.3% 성장함.
- 종신보험과 금리연동형 보험이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건강보험, 질병보험, 어린이보험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7,028	28,192	115,676	28,266	31,173	32,542	29,385	121,366
	성장률	56.8	16.0	26.5	18.3	17.4	-12.1	4.2	4.9
	구성비	23.9	23.4	23.0	23.3	24.6	20.9	21.9	22.6
사망	보험료	57,714	60,047	229,359	61,844	63,199	64,497	65,798	255,338
	성장률	7.0	9.7	8.3	11.2	12.9	11.8	9.6	11.3
	구성비	37.3	49.9	45.5	51.0	49.9	41.4	49.1	47.5
생사 혼합	보험료	26,139	21,916	94,505	20,028	20,264	20,279	19,076	79,646
	성장률	-9.5	-18.7	-14.4	-14.6	-11.8	-22.4	-13.0	-15.7
	구성비	16.9	18.2	18.8	16.5	16.0	13.0	14.2	14.8
변액 보험	보험료	3,210	2,356	7,621	2,785	3,293	6,256	11,456	23,789
	성장률	372.6	122.5	285.7	202.8	189.9	94.9	386.3	212.2
	구성비	2.1	2.0	1.5	2.3	2.6	4.0	8.6	4.4
개인 계	보험료	124,091	112,510	447,161	112,923	117,929	123,574	125,714	480,140
	성장률	15.8	5.1	7.6	8.7	10.6	-0.4	11.7	7.4
	구성비	80.1	93.6	88.7	93.2	93.1	79.4	93.9	89.3
단체	보험료	30,836	7,726	56,764	8,262	8,769	32,158	8,177	57,366
	성장률	-19.6	-10.3	-24.5	-18.3	8.3	4.3	5.8	1.1
	구성비	19.9	6.4	11.3	6.8	6.9	20.7	6.1	10.7
합계	보험료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성장률	6.5	3.9	2.7	6.3	10.4	0.5	11.3	6.7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4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은 상위사의 비중 감소세가 지속되고 외국사의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수입보험료가 소폭의 증가(1.5%)에 그침에 따라 전년 대비 3.5%p 감소한 68.5%로 7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들은 수입보험료가 각각 10.7%, 29.5%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15.0%, 16.5%로 확대됨.
 - 외국사는 일부 우량사들의 2자리수의 성장이 이어지고 방카슈랑스 등 신채널 및 특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외국사들의 선전으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확대됨.
 - 국내 중소형사는 일부 경영이 어려웠던 보험회사들이 실적이 반전되고 전업사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5%대에 진입함.

<표 6>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개사	71.5	71.0	72.0	70.1	67.9	68.6	67.7	68.5
상위 9개사	87.7	89.0	89.4	88.4	86.3	86.5	86.0	86.8
외 국 사	13.0	14.9	13.6	15.5	17.4	15.3	17.7	16.5
국내중소형사	15.5	14.2	14.4	14.4	14.7	16.1	14.6	15.0
허편달지수	0.1969	0.1993	0.2024	0.1935	0.1807	0.1847	0.1823	0.1848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편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5년 3월말 알리안츠 등 11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4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수지가 증가하고 기타수지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지차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2.6% 증가한 2조 1,051억원을 기록하였음.

- 보험영업수지는 보험영업수익과 비용이 각각 소폭 증가하면서 수익 또한 3.1%의 소폭 증가하였음.
- 투자영업수지는 연중 채권금리의 저금리기조의 지속에 따라 채권매각에 따른 이익증가와 평가이익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0조 7,412억원을 기록함.
- 또한, 법인세가 증가하고 준비금전입액이 증가하였으나 기타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하고 보험영업손익 및 투자영업손익과 상쇄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함.

<표 7>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356,191	477,213	118,151	242,546	368,818	492,808
	투자영업	84,098	118,707	33,879	63,184	101,735	129,822
	기타	5,638	4,487	868	1,451	2,015	5,548
	소계	445,928	600,407	152,898	307,181	472,568	628,178
총 비 용	보험영업	281,384	378,857	88,544	179,129	276,027	391,414
	투자영업	18,513	24,140	5,882	9,617	14,112	22,410
	기타비용	15,437	26,332	3,260	7,076	19,493	20,123
	소계	315,334	429,329	97,686	195,822	309,632	433,946
수 지 차	보험영업	74,807	98,356	29,607	63,417	92,791	101,395
	투자영업	65,585	94,567	27,997	53,567	87,623	107,412
	기타	-9,798	-21,845	-2,392	-5,625	-17,478	-14,575
	소계	130,593	171,078	55,212	111,360	162,936	194,232
준비금전입		109,932	149,949	42,688	90,655	133,639	167,578
법인세		187	5,255	8	8	646	5,602
당기순이익		20,474	15,874	12,517	20,696	28,651	21,051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4 전체 보험금지급률은 전년 대비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이 소폭 감소하여 4.2%p 하락한 반면, 사업비율은 사업비의 증가로 2.1%p 증가함.
- 지급보험금은 생사혼합보험이 감소(14.8%)하면서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단체보험의 퇴직보험이 감소세(14.7%)로 반전하면서 0.4% 감소함.
- 상품별로 일반계정 건강보험만이 증가세가 확대(39.7%)되었으며, 종신보험 41.2%p, 어린이보험 20.5%p, 상해보험 15.2%p, 질병보험 13.9%p가 감소하였음.
 - 사업비율은 생사혼합보험 사업비가 96.0%, 생존보험업비가 17.4% 증가하는 등 저축성보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2.1%p 증가함.

<표 8>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지급률	51.7	68.7	63.0	59.9	56.7	51.5	68.4	58.8
생 존	39.4	60.5	50.4	52.8	48.9	54.0	66.4	55.7
사 망	32.8	34.3	32.2	32.6	33.8	35.9	36.7	34.8
생사혼합	108.9	121.1	126.6	123.9	112.7	115.6	125.0	119.3
개 인 계	51.0	58.2	57.2	54.5	52.0	55.3	60.4	55.6
사 업 비 율	14.8	19.0	17.1	18.0	18.6	16.0	24.6	19.2
신 계 약 률	19.6	27.4	27.4	6.2	12.7	19.2	27.3	27.3
해 약 률	12.9	16.2	16.2	4.3	8.0	11.5	14.2	14.2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약률은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4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7.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속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0.7%p 감소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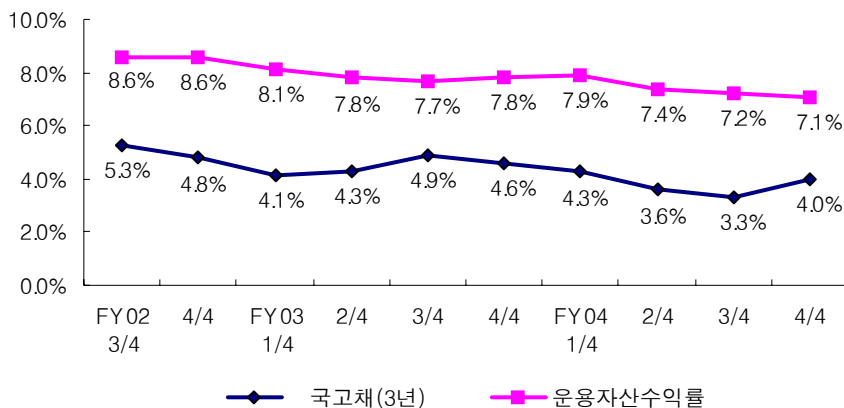
○ 유가증권 수익률은 연중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위험자산수익률의 하락에 기인하여 전년 말 대비 0.9%p 감소한 6.2%를 기록함.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년 말에 비해 0.2%p 감소하였고, 평균수익률은 3.4%p 감소하였는데, 이는 특히 주식이나 수익증권의 수익률 감소에 기인함.

- 반면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년 말에 비해 6.9%p 증가하였고, 평균수익률은 0.4%p 감소하였으며 이는 비중이 큰 채권 수익률의 하락(0.4%p)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만기보유증권 보유는 전년 말에 비해 4.3%p 감소하였으며 수익률 또한 1.4%p 감소하였으며, 특히 투자주식수익률이 5.0%p나 감소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중시함에 따라 채권 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단기 운용자산의 비중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임.
- FY2004 매도가능증권의 보유증가 중 채권이 그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일반계정 자산 중 40.3%를 차지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반면 매도가능증권의 주식비중은 수익률 하락과 함께 0.7%p 감소하여 채권으로의 보유, 편중현상이 심화됨.

<표 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1.8	3.1	1.8	3.1	2.0	2.9	2.0	3.0	1.6	3.4
유 가 증 권	54.8	7.0	55.6	7.5	56.6	6.6	57.2	6.3	57.7	6.2
○ 단기매매증권	3.3	11.0	3.1	7.2	2.7	8.9	3.5	8.0	3.1	7.6
- 주 식	0.2	79.5	0.2	9.8	0.2	14.9	0.2	16.2	0.2	25.3
- 채권 등	1.8	10.4	1.8	8.7	1.7	11.0	1.6	11.2	1.6	8.6
- 수익증권	1.3	6.6	1.1	4.5	0.9	4.8	1.7	3.6	1.3	4.0
○ 매도가능증권	39.7	6.8	43.9	7.5	45.3	6.8	45.5	6.5	46.6	6.4
- 주 식	4.7	5.4	3.8	2.4	3.7	3.1	3.6	2.3	4.0	3.0
- 채권 등	32.3	7.2	37.6	7.8	39.1	7.2	39.6	7.0	40.3	6.8
- 수익증권	2.7	4.2	2.5	12.4	2.5	6.8	2.3	5.7	2.4	5.7
○ 만기보유증권	11.4	6.6	7.7	4.8	7.7	4.9	7.4	5.0	7.1	5.2
- 채권 등	11.4	6.6	7.7	4.8	7.7	4.9	7.4	5.0	7.1	5.2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4	6.2	0.9	45.5	0.8	6.9	0.8	1.8	0.8	1.2
대 출 채 권	26.1	10.6	25.4	9.8	24.7	10.0	23.7	10.0	23.5	10.1
부 동 산	5.2	4.1	5.0	4.9	4.8	4.3	4.6	5.0	4.6	4.7
운 용 자 산 계	88.1	7.8	87.9	7.9	88.2	7.4	87.4	7.2	87.3	7.1
비 운 용 자 산	11.9	5.7	12.1	6.9	11.8	6.0	12.6	10.7	12.7	8.8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2.1)	7.6	100.0 (92.2)	7.8	100.0 (92.4)	7.2	100.0 (91.4)	7.6	100.0 (91.2)	7.3
특 별 계 정 자 산	7.9	6.1	7.8	5.4	7.6	4.7	9.4	5.1	9.7	5.1
총 자 산	100.0	7.5	100.0	7.6	100.0	7.0	100.0	7.4	100.0	7.1
총 자 산 규 모	1,873,615		1,915,209		1,993,836		2,099,079		2,116,098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4 회사직급과 대리점을 통한 초회보험료 비중은 감소한 반면,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회사직급을 통한 초회보험료 비중은 대형사의 경우 FY2003에 비해 1.7%p 감소했으며, 중소형사는 8.2%p 증가하였고, 외국사는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대형사의 경우 3.3%p 감소한 반면, 외국사는 15.2%p 증가하였고 중소형사는 1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대형사의 경우 8.9%p 증가하고 중소형사는 0.5%p 소폭 증가하였으나, 외국사는 1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리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소폭 감소(0.3%p)한 가운데, 중소형사의 경우 6.4%p 증가함.

<표 10>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회사직급	18.1	15.9	17.8	8.1	13.6	29.2	8.5	16.5
보험설계사	25.7	42.6	37.2	47.0	33.5	28.3	49.6	38.2
대 리 점	6.1	7.9	7.5	8.3	5.9	6.3	8.9	7.2
중개인	-	-	-	0.0	0.1	0.0	0.0	0.0
T/M	1.7	3.1	2.3	0.3	0.2	0.2	0.3	0.3
C/M	0.05	0.1	0.1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48.2	30.1	34.8	36.3	46.7	36.0	32.6	37.8
기 타	0.2	0.3	0.3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943	13,632	64,383	11,868	16,443	21,974	16,569	66,853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0부터 특별계정을 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증감 중 대형사의 방카슈랑스 비중이 감소하고 반면 설계사채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이 더욱 확대되고 설계사 채널 비중이 감소된 반면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감소하였음.

- 대형사 설계사비중은 50.9%로 8.9%p가 증가한 반면 방카슈랑스 비중은 3.3%p 감소한 18.1%인 반면 외국사의 경우는 방카슈랑스채널이 15.2%p 증가한 76.2%를 차지하는 대조를 보임.
- 한편, 전체적으로 T/M 채널 등이 크게 감소(2.1%p)하는 부진을 보임.

<모집조직>

□ FY2004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수뿐만 아니라 임직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은 임직원수를 줄이고 외국사는 증가시켰으며,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들이 대리점수를 줄이고 중소형사들은 대리점수를 증가시켰음.
-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들을 줄인 가운데, 대형사와 외국사들은 남성설계사들을 각각 13.3%, 11.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표 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임직원	26,172	26,201	26,237	26,015	25,412
보험설계사	143,498	145,496	144,714	139,945	136,947
대리점	7,219	7,268	7,003	6,718	6,672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김진익 선임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손해보험 전체>

□ FY200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8.6% 성장한 23조 2,173억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은 건강보험 판매 증가와 방카슈랑스로 인한 저축성보험 성장으로 12.3%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최근 3년 연속 손해보험 전체 보험료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인상으로 7.0%의 성장을 나타내었고,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11.4% 성장하였음.

□ FY2004 총자산은 43조 4,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음.

- 원수보험료 성장 및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것임.

<표 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57,171	232,173
	5.6	3.8	9.0	8.1	9.3	8.1	8.6
총자산	388,229	388,229	395,180	409,196	426,766	434,720	434,720
	9.8	9.8	1.8	3.5	4.3	1.9	15.0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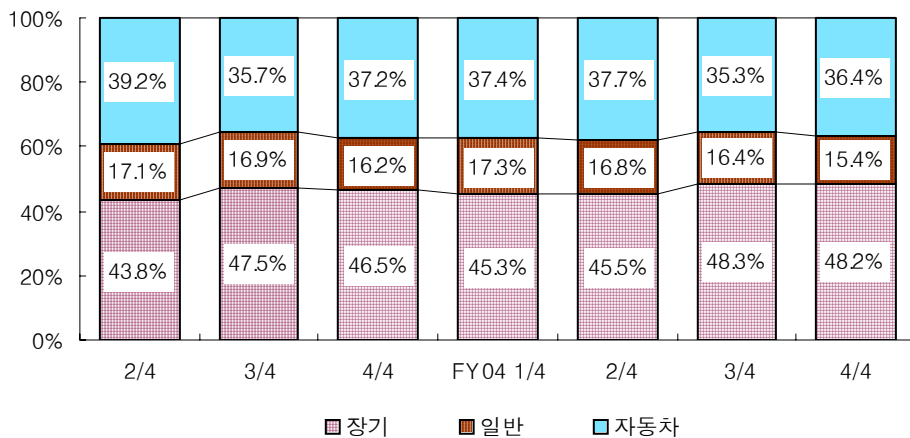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4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의 급성장에 반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상대적 부진으로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장기손해보험 46.8%, 자동차보험 36.7%, 일반손해보험 16.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중,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4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8조 5,208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대비 7.0%의 완만한 성장을 나타냄.
- 경기침체에 따른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시장의 점유율 증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기본 보험료 인상으로 성장함.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04년 하반기 이후 2.2~2.4%로 둔화되었으며, 온라인시장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한 7.2%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 CI보험 등 신상품 판매와 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상해
부문의 수요 지속,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3% 성장한 9조 6,353억원을 나타냄.
- FY2004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상해 20.7%, 질병 15.5%, 저축성 18.7% 증가하였으
며, 특히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상해 88.0%, 저축성 12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보증보험은 요율 인하, 가계신용 수요의 부진 및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마이너스 성장
지속으로 전년 대비 -4.3% 성장함.
- 2004년 하반기 이후 많은 종목에서 요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보험 등
대부분의 종목에서 성장을 시현함.
- 반면, 신용카드신용보험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이 제한되면서 성장 급감세를
지속하여 전체 보증보험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함.
- FY2004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5,071억원을 기록함.
- 수출증가로 인한 적하보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보험시장 Soft화에 따른 항
공보험과 선박보험의 요율 인하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적하보험 13.2%, 선박보험 5.9%, 운송보험 35.9%, 항공보험 -46.4%의 성장률을 보
임.
-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방카슈랑스로 인한 화재보험의 종합보험 이전으로 전년
대비 -7.1% 성장한 2,937억원을 나타냄.
- 반면 FY2004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 및 투자위축이 지속되면서 공장물건을 중심으
로 패키지형 상품보다 단순 화재보험 가입을 선호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폭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특종보험은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고성장으로 성
장세가 지속되어 12.7% 성장함.
- 종목별로 기술보험 31.1%, 책임보험 8.4%, 상해보험 27.1%, 종합보험 5.9%의 성장
률을 나타냄.

<표 1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692	3,160	763	664	825	685	2,937
	성장률	-7.7	-1.8	-7.5	-12.8	-6.4	-1.0	-7.1
	구성비	1.3	1.5	1.4	1.2	1.3	21.2	1.3
해 상	보험료	1,310	5,242	1,263	1,410	1,263	1,135	5,071
	성장률	-7.6	-6.5	-9.5	1.8	9.7	-13.3	-3.2
	구성비	2.5	2.5	2.3	2.5	2.0	2.0	2.2
자동차	보험료	19,693	79,606	20,851	21,528	21,991	20,838	85,208
	성장률	7.3	0.6	10.1	4.2	8.3	5.8	7.0
	구성비	37.2	37.2	37.4	37.7	35.3	36.4	36.7
보 증	보험료	2,475	9,419	2,353	2,179	2,218	2,268	9,018
	성장률	-2.2	0.6	-2.9	-3.6	-1.8	-8.3	-4.3
	구성비	4.7	4.4	4.2	3.8	3.6	4.0	3.9
특 종	보험료	3,933	18,073	5,083	5,088	5,691	4,507	20,369
	성장률	13.3	8.0	11.8	14.2	10.7	14.6	12.7
	구성비	7.4	8.5	9.1	8.9	9.1	7.9	8.8
해외 원보험	보험료	173	628	208	214	188	186	796
	성장률	13.3	11.4	51.9	38.4	15.3	7.0	26.7
	구성비	0.3	0.3	0.4	0.4	0.3	0.3	0.3
장 기	보험료	22,126	85,794	22,795	23,553	24,710	25,295	96,353
	성장률	6.5	7.1	9.2	12.2	13.3	14.3	12.3
	구성비	41.8	40.1	40.9	41.3	39.7	44.2	41.5
개 인 연 금	보험료	1,748	6,873	1,746	1,680	1,695	1,679	6,799
	성장률	0.4	1.3	2.5	-1.5	-1.3	-3.9	-1.1
	구성비	3.3	3.2	3.1	2.9	2.7	2.9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751	4,949	686	715	3,642	579	5,622
	성장률	-14.6	12.4	113.2	84.3	4.4	-22.9	13.6
	구성비	1.4	2.3	1.2	1.3	5.9	1.0	2.4
계	보험료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57,172	232,173
	성장률	5.6	3.8	9.0	8.1	9.3	8.1	8.6

주 : 1)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4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에서의 대형사 시장점유율 확대 및 자동차보험에서의 온라인 전업사의 약진 등으로 일반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는 추세임.
-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하였고 온라인 전업사의 경우 전년 대비 0.8%p 증가한 2.0%를 나타낸 반면, 일반 중소형사는 1.4%p 감소한 21.7%의 점유율을 나타냄.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상위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감소하는 반면,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대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어 전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음.

<표 14>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점유비	상위4개사	70.2	70.2	71.0	71.1	71.1	71.1	71.1
	일반사 계	94.6	94.6	94.7	94.8	94.9	94.8	94.8
	전 업 사	4.5	4.5	4.3	4.1	4.0	4.0	4.0
	외 국 사	0.9	0.9	1.0	1.1	1.2	1.2	1.2
허 핀 달 지 수		0.1576	0.1576	0.1588	0.1595	0.1588	0.1583	0.1583

-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적자 감소와 투자영업이익의 확대로 전년 대비 102.2% 증가한 1조 1,394억원을 나타냄.

○ 그러나,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영업적자가 7,891억원으로 더욱 확대되어 당기순이익이 5,571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부진으로 전년도 178억원 흑자에서 대폭 감소하여 3,689억원 적자를 시현함.

○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3% 증가한 1조 9,479억원을 나타냄.

<표 15> 손해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145,055	195,477	49,897	101,551	154,488	208,597
	투자영업	16,571	23,056	5,736	12,308	19,292	25,320
	기 타	5,384	6,713	1,119	2,273	6,547	7,632
	계	167,009	225,245	56,751	116,132	180,328	241,549
총 비 용	보험영업	147,472	201,558	49,719	101,688	155,279	212,285
	투자영업	5,452	8,102	2,175	3,453	4,654	5,841
	기 타	6,182	8,199	1,276	2,614	8,324	9,706
	계	159,106	217,859	53,170	107,755	168,257	227,833
수 지 차	보험영업	-2,418	-6,081	178	-137	-791	-3,689
	투자영업	11,120	14,954	3,561	8,855	14,638	19,479
	기 타	-798	-1,487	-157	-340	-1,777	-2,074
	계	7,904	7,387	3,581	8,377	12,070	13,717
법 인 세		1,453	1,751	665	1,426	2,071	2,323
당기순이익		6,451	5,635	2,916	6,952	10,000	11,394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4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한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소폭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p 감소한 100.8%를 나타냄.
-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에서 개선된 반면, 장기손해보험에서 전년 대비 5.5%p 증가함.
- 사업비율은 경기부진 지속,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 이연등의 영향으로 손해보험 전 종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4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77.7%임.
- 대부분 종목에서 손해율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확대에 인한 적립금 규모 증가로 전년도 수준의 손해율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0%p 감소한 72.7%를 나타낸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판매 확대에 따른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증가액 증가로 전년 대비 5.5%p 증가한 87.9%를 보임.

<표 1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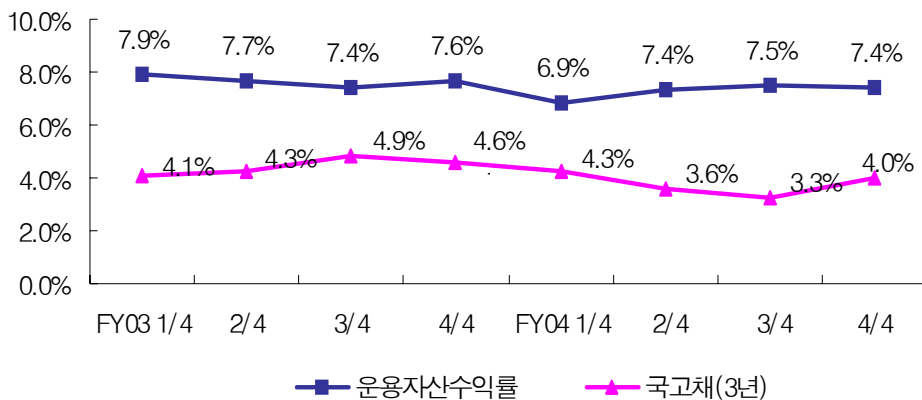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3/4	4/4	1/4	2/4	3/4	4/4
손해율	화재보험	61.6	61.7	52.7	58.8	54.8	56.4
	해상보험	57.4	57.7	61.3	51.3	49.3	49.5
	자동차보험	75.8	76.7	71.6	72.3	72.7	72.7
	보증보험	23.8	44.1	46.6	27.6	21.9	25.3
	특종보험	51.0	57.8	43.1	47.4	46.5	52.0
	해외원보험	48.5	47.5	13.2	44.3	49.4	41.0
	장기보험	81.3	82.4	85.9	86.6	87.1	87.9
	개인연금	116.1	121.8	117.9	118.4	118.1	123.8
전 체		75.2	77.6	76.1	76.6	76.6	77.7
사업비율		24.8	24.3	21.8	22.7	23.0	23.1
합산비율		100.1	101.9	97.9	99.2	99.6	100.8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4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7.4%를 나타내어 수익률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저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 등의 처분 및 평가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증가율 둔화, 단기매매증권 처분 및 평가손실 등에 기인하는 것임.
 - 매도가능증권의 주식 수익률은 FY2004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전년 대비 3.7%p 증가한 9.9%를 기록하였으며, 채권 등의 수익률은 7.1%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해외투자에 따른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매입한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FY2004 하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대출채권의 수익률은 저금리 지속에 따라 전년 대비 0.3%p 감소한 8.3%를 기록하였음.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저금리 기조 및 경기부진 지속에 따

라 안정적 자산운용을 중시함에 따라 주식 비중은 감소, 채권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매도가능증권의 주식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5.8%를 나타내었으며, 채권 등은 FY2004 이후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여 33.1%의 점유율을 보임.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도 보다 0.2%p 확대된 18.3%를, 부동산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8.1%의 점유율을 나타냄.

<표 17>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9	4.1	5.1	3.8	4.7	3.8	4.9	3.7	4.4	4.0
유 가 증 권	54.7	8.5	54.6	7.3	54.9	8.1	55.1	8.3	55.3	8.1
○단기매매증권	15.1	10.5	14.7	7.3	14.4	8.3	13.8	9.1	12.4	8.9
- 주 식	0.9	103.3	0.7	21.2	0.5	32.8	0.6	28.2	0.5	31.5
- 채 권 등	8.8	8.9	9.2	7.4	8.3	8.5	7.4	10.6	7.2	9.7
- 수익증권	5.4	5.1	4.8	4.9	5.6	4.9	5.8	4.7	4.7	4.7
○매도가능증권	36.5	7.5	36.3	7.3	37.1	7.9	38.0	7.7	39.5	7.5
- 주 식	6.4	6.2	5.6	10.0	5.4	11.7	5.5	8.5	5.8	9.9
- 채 권 등	29.9	7.8	30.4	6.8	31.2	7.2	31.9	7.6	33.1	7.1
- 수익증권	0.3	15.2	0.3	0.9	0.4	-1.3	0.6	0.1	0.6	6.0
○만기보유증권	2.7	7.9	3.0	7.2	2.9	7.1	2.8	9.9	2.9	9.1
- 채 권 등	2.7	7.9	3.0	7.2	2.9	7.1	2.8	9.9	2.9	9.1
○투자주식 ¹⁾	0.5	14.4	0.5	14.8	0.5	26.1	0.5	21.3	0.5	24.8
대 출 채 권	18.1	8.6	18.5	8.2	18.4	8.3	18.0	8.4	18.3	8.3
부 동 산	8.7	3.0	8.5	2.9	8.3	2.7	8.1	2.7	8.1	2.9
운 용 자 산 계	86.4	7.6	86.7	6.9	86.2	7.4	86.1	7.5	86.1	7.4
비 운 용 자 산	13.6	-	13.3	-	13.8	-	13.9	-	13.9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6.6	100.0	6.1	100.0	6.5	100.0	6.7	100.0	6.6
	(96.7)	-	(96.8)	-	(96.7)	-	(96.2)	-	(96.4)	-
특 별 계 정 자 산	3.3	-	3.2	-	3.3	-	3.8	-	3.6	-
총 자 산	100.0	6.4	100.0	5.9	100.0	6.3	100.0	6.5	100.0	6.3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4 손해보험의 판매채널은 전통채널의 축소, 온라인채널 및 방카슈랑스의 시장 확대로 채널간 구성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전통채널의 시장점유율은 회사직급의 경우 전년 대비 1.1%p, 보험설계사는 0.2%p, 대리점은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방카슈랑스는 장기저축성보험의 판매 호조, TM 및 CM은 온라인자동차보험의 확대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함.
 - 방카슈랑스로 거수한 전체 보험료 중에서 장기저축성보험료는 3,758억원으로 82.8%를 차지함.

<표 1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1/4	2/4	3/4	4/4
회사직급	14,833	19,323	4,788	9,627	14,500	18,559
	9.5	9.3	8.7	8.6	8.5	8.2
보험설계사	55,697	74,465	19,769	39,889	60,254	80,439
	35.6	35.7	35.9	35.8	35.5	35.5
대 리 점	78,901	105,607	27,551	55,335	84,414	112,552
	50.4	50.6	50.0	49.7	49.7	49.7
중개인	1,378	1,791	486	990	1,700	2,123
	0.9	0.9	0.9	0.9	1.0	0.9
TM	3,153	3,901	1,061	2,361	3,848	5,445
	2.0	1.9	1.9	2.1	2.3	2.4
CM	974	1,168	273	642	1,029	1,426
	0.6	0.6	0.5	0.6	0.6	0.6
방카슈랑스	401	813	718	1,759	3,099	4,538
	0.3	0.4	1.3	1.6	1.8	2.0
공동인수	1,307	1,727	416	776	1,115	1,468
	0.8	0.8	0.8	0.7	0.7	0.6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채널의 시장점유율이 7.2%로 확대되어 전체 손해보험 온라인채널 점유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에서 대형사 전통채널의 점유율도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1%로 확대된 반면, 중소형사 전통채널은 0.8%p 감소한 24.7%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4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은 임직원의 경우 생산성이 하락한 반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생산성은 증가함.
-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은 설계사 조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판매 급증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리점 생산성은 대리점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1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3		FY2004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0,800	21,207	21,204	21,489	21,731	22,026
	71,314.6	91,115.4	22,580.3	44,800.0	66,727.1	84,260.5
보험설계사	59,286	60,178	62,356	63,759	65,488	61,539
	93,945.9	123,741.4	31,702.7	62,561.5	92,007.4	130,711.7
대 리 점	50,021	48,217	48,352	47,479	46,615	45,953
	157,735.0	219,024.1	56,980.5	116,546.9	181,087.5	244,928.2

-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2004년 보험상품 판매현황 분석

가. 생명보험

<종목별 현황 및 판매실적>

'04년 12월말
생보사
판매상품은
575종으로
구성

□ '04년 12월말 현재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전년 말 532종보다 43종이 증가한 575종으로 구성됨.

- 개인보험의 판매상품 수는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감소함.
- 개인보험은 방카슈랑스*의 실시 및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개발 확대로 전년 말 대비 58종 증가한 471종이 판매됨.

* 방카슈랑스전용상품 : 29종('03.12월말) → 55종('04.12월말)

<표 1> 생보사의 보험종목별 판매상품 현황

(단위 : 종)

구 분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증감(C-B)
개인 보험	보장성	263	296	326	30
	저축성	98	117	145	28
	계	361	413	471	58
단체 보험	보장성	86	87	75	-12
	저축성	32	32	29	-3
	계	118	119	104	-15
합 계		479	532	575	43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임.

'04년도 생보사
수입보험료
52조 3,850억원

□ '04년도 수입보험료는 52조 3,850억원이며, 개인 보장성보험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반면, 개인 저축성보험 및 단체보험은 각각 0.1%, 1.3% 감소함.

- 개인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CI보험(Critical Illness) 등 건강보험의 판매호조로 2조 5,517억원 증가한 24조 9,587억원에 달함.
- 개인 저축성보험 및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각각 319억원, 737억원 감소함.

<표 2> 생보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 (C-B)/B)
개인 보험	보장성	204,535	(42.0)	224,070	(44.9)	249,587	(47.6)	25,517 (11.4)
	저축성	202,122	(41.6)	217,667	(43.6)	217,348	(41.5)	-319 (-0.1)
	소계	406,657	(83.6)	441,737	(88.5)	466,935	(89.1)	25,198 (5.7)
단체 보험	보장성	12,612	(2.6)	12,651	(2.5)	12,491	(2.4)	-160 (-1.3)
	저축성	67,387	(13.8)	45,000	(9.0)	44,424	(8.5)	-577 (-1.3)
	소계	79,999	(16.4)	57,651	(11.5)	56,915	(10.9)	-737 (-1.3)
합 계		486,655	(100)	499,388	(100)	523,850	(100)	24,462 (4.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안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현황>

'04. 12월말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보험
344종,
금리연동형보험
192종,
변액보험
38종으로 구성**

- '04. 12월말 현재 생보사의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보험 344종, 금리연동형보험 192종, 변액보험 38종으로 구성됨.
- 금리연동형 및 변액보험의 판매상품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금리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금리확정형보험은 감소됨.

<표 3> 생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상품 현황

(단위 : 중)

구 분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증감(C-B)
금리확정형보험	346	356	344	-12
금리연동형보험	122	155	192	37
변액보험	10	20	38	18
합 계	478	531	574	43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이며,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않는 상품(보험기간이 일단위인 초단기상품) 1종은 제외됨.

<표 4> 생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 (C-B)/B)	
금리확정형보험	302,813	(62.2)	286,782	(57.4)	270,441	(51.6)	-16,341	(-5.7)
금리연동형보험	182,129	(37.4)	204,207	(40.9)	234,253	(44.7)	30,046	(14.7)
변액보험	1,714	(0.4)	8,399	(1.7)	19,155	(3.7)	10,757	(128.1)
합 계	486,655	(100)	499,388	(100)	523,850	(100)	24,462	(4.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안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상품판매 추이 및 동향분석>

보장성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 증가세

□ 보장성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의 증가세가 뚜렷함.

-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저보험료 고보장 선호로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증가됨.
- IMF위기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저축성보험시장이 축소되면서 금리연동형보험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최근 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에 대응하여 금리연동형보험의 비중이 재상승함.

**CI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는 증가,
종신보험의
판매는 감소**

- CI보험 및 변액보험의 판매는 증가하는 반면, 종신보험의 판매는 감소하는 추세임.
- '02년 5월 도입된 CI보험의 경우, 인구노령화 등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04년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조 3,032억원 증가한 2조 7,879억원에 달함.
- '01년 7월 도입된 변액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 등으로 판매가 급증하여 '04년도 수입보험료는 1조 9,155억원에 달함.
-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기존계약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전년대비 2조 72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계약건수 및 초회보험료는 '02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함.

나. 손해보험

<종목별 현황 및 판매실적>

**'04년 12월말
손보사의
판매상품은
전년 말 대비
172종 증가**

- '04년 12월말 현재 손보사의 판매상품은 3,026종으로 전년 말 대비 172종 증가함.
- 일반손해보험이 2,546종으로 전년 말 대비 91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책임보험* 판매상품 증가에 기인함.
- * 책임보험 : 547종('03.12월말) → 596종('04.12월말)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 및 장기종합보험 상품과 방카슈랑스전용상품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말 대비 48종 증가한 251종의 상품이 판매되었음.
- * 장기상해 : 115종('03.12월말) → 143종('04.12월말)
- * 장기종합 : 29종('03.12월말) → 44종('04.12월말)
- * 방카슈랑스전용상품 : 13종('03.12월말) → 21종('04.12월말)
- 자동차보험은 208종으로 전년 말 대비 30종이 증가하였으며, 연금·퇴직보험은 21종으로 3종이 증가함.

<표 5> 손보사 보험종목별 판매상품 현황

(단위 : 종)

구 분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증감(C-B)
일반손해	2,661	2,455	2,546	91
장기손해	204	203	251	48
자동차	176	178	208	30
연금·퇴직	20	18	21	3
합 계	3,061	2,854	3,026	172

'04년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전년대비
7.9% 증가

- '04년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22조 7,801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함.
-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과 종합보험상품의 판매증가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9조 3,184억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3조 7,189억원과 8조 4,046억원으로 4.4%와 7.4% 증가함.
- 연금·퇴직보험은 1조 2,662억원으로 5.4% 증가함.

<표 6> 손보사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 (C-B)/B)
일반손해	33,882(16.8)	35,630(17.0)	37,189(16.4)	1,559(4.4)
장기손해	78,534(39.0)	84,451(40.1)	93,184(41.0)	8,733(10.3)
자동차	78,601(40.0)	78,287(37.2)	84,046(37.0)	5,759(7.4)
연금·퇴직	10,603(5.2)	12,010(5.7)	12,662(5.6)	652(5.4)
합 계	201,620(100.0)	210,378(100.0)	227,081(100.0)	16,703(7.9)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합한 실적 기준이며, 2002~2004의 ()안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금리연동형
보험의 증가세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현황>

- '04. 12월말 현재 손보사의 장기, 연금·퇴직 판매상품은 금리확정형 보험 77종과 금리연동형보험 195종으로 구성됨.
- 금리확정형보험은 전년말 대비 4종 감소하였으나 금리연동형 보험은 55종 증가됨.
 - 금리연동형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금리확정형보험은 감소됨.

<표 7> 손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판매상품 현황

(단위 : 종)

구 분	'02.12월말 (A)	'03.12월말 (B)	'04.12월말 (C)	증감(C-B)
금리확정형보험	91	81	77	-4
금리연동형보험	133	140	195	55
합 계	224	221	272	51

주 : 독립특약을 제외한 주보험 기준임.

<표 8> 손보사의 이율적용 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 (C-B)/B)	
금리확정형	42,651	(47.9)	39,940	(41.4)	35,938	(34.0)	-4,002	(-10.0)
금리연동형	46,486	(52.1)	56,521	(58.6)	69,908	(66.0)	13,387	(23.7)
합 계	89,137	(100.0)	96,461	(100.0)	105,846	(100.0)	9,385	(9.7)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장기보험과 연금·퇴직보험 원수보험료의 합계임.

<상품판매 추이 및 동향분석>

통합형보험
성장

- '03.12월부터 판매중인 통합형보험은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으나 운전자보험의 신계약건수는 소폭 감소되었음.
- '03년 12월 판매개시된 통합형보험*은 신계약건수가 256천건에 달하며 1,369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 * 통합형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신체, 자동차, 재산, 배상책임 등에 대한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보험
- '04년도 운전자보험의 신계약건수는 965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25천건 감소했으나 원수보험료는 2조 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23억원 증가함.

<표 9> 통합형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판매실적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2002(A)		2003(B)		2004(C)		증감(률) (C-B,(C-B)/B)	
통합형 보험	신계약 건수	-	(-)	0.2	(0.0)	256	(6.2)	255.8	(-)
	초회 보험료	-	(-)	0.3	(0.0)	660	(19.8)	659.7	(-)
	원수 보험료	-	(-)	0.3	(0.0)	1,369	(1.5)	1,368.7	(-)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	1,068	(26.0)	990	(26.8)	965	(23.3)	-25	(-2.5)
	초회 보험료	537	(15.9)	578	(17.3)	528	(11.3)	-50	(-8.7)
	원수 보험료	18,793	(18.9)	19,775	(21.4)	20,598	(22.1)	823	(3.6)

주 : 1) CY 기준 실적임.

2) 2002~2004의()안은 장기보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다. 분석결과

- 고령화 관련 상품과 변액보험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됨.
 -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CI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확대됨.
 - 실적배당과 자유입출금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의 판매로 실적배당형상품이 다양화되었으며, 금리역마진에 대한 적극 대처로 인하여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가 증가함.
 - 맞춤형 보장설계가 가능한 통합형보험의 판매가 확대됨.

(최원 연구원)

2. 자산운용업의 규제완화 방안 마련

<추진배경>

자산운용업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 ☐ 자산운용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배분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저금리 · 고령화 추세,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등으로 간접투자와 자산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
- 지식집약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자로서 신성장 · 혁신산업에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는 등 산업 전략적 우수성이 부각됨.
- 향후 발전 잠재력과 동북아내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인정되어 금융허브 구축의 선도 산업으로 지정됨.

자산운용업의
수탁고 '05.6에
약 201조로 성장

- ☐ '97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자산운용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자산운용회사의 수탁고는 200.6조원('05.6.13)으로 '03년말에 비해 약 50조원 증가함.

<표 1> 자산운용회사의 수탁고

(단위 : 조원)

	'98	'99	'00	'01	'02	'03	'04	'05.6.13
수탁고	195	194	138	156	175	145	187	201

- 최근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1단계 규제완화 방안>

①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 대형화 촉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 대형화
촉진**

☐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촉진

o 파생상품 · 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동 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함(예 : 100억원 → 30억원).

o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금지 제한을 완화하여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의 활성화를 유도함.

* (예) 주식, 채권 전문운용사의 경우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운용위탁을 허용함.

☐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

o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만이 설립 ·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는 등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예)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 설립 지원

o 사모전용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함(예 : 100억원 → 30억원).

☐ 펀드의 대형화 · 장기화 유도

o 대형 · 장기 펀드에 대하여는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 산정시 우대함.

* (예) 자산운용사의 총위험액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펀드규모에 따라 차감함.

- 기존 펀드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기존 펀드와 별 차이가 없는 펀드를 새로이 설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펀드 약관심사를 강화하여 소규모 단기펀드 난립을 억제함.

□ 자산운용사간 합병, 전문화된 운용사 설립 등을 적극 유도함.

- * (예) 적기시정조치 유예, 운용사 설립시 출자승인 등을 신속히 진행

**펀드 운용과
영업에
있어서의
규제완화 추진**

② 펀드 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 펀드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 펀드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예: OECD 국가)의 국공채 등에 대해서는 해외 국공채에 대해 종류별로 펀드재산의 10%내로 운용토록 한 제한을 완화함(10%→ 30%).

-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펀드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에 한해서 펀드 자산의 일정범위내(예: 20%)에서 허용함.

-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운용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간접투자기구의 투자제한(동일 회사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50% 등)을 완화함.

- * 재간접투자기구 :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동 업무를 위탁할 경우 동 계열사의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허용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자산운용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함.

- ☐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상품 설정·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대함(예: 전환형, 모자형 펀드 등).

**펀드의
판매채널을
확대함**

③ 펀드의 판매채널 확대

- ☐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추진
 - o 1단계 조치로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독립된 개인을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드 판매권유를 허용함.
 - o 2단계로 자산운용사의 자사 운용펀드 직접판매 범위(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펀드 판매의 알선·중개, 권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Financial Planner)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 o 3단계로 판매회사 요건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함.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중금사 등

- ☐ On-Line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내용과 설명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여 On-Line 펀드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④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사모투자펀드
(PEF)의 활성화**

- ☐ 무한책임사원(G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참여 확대
 - o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GP 참여를 제한 없이 허용함으로써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활용함.

□ 장기투자가 가능한 유한책임사원(LP) 참여 촉진

- 투자대상기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배정된 자금을 연단위로 출자하는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기금에 대한 일부 특례를 인정함.
- PEF를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포함함으로써 현행 보험업법령상 PEF가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금감위 승인후 지분 15% 초과 소유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의 PEF 지분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장애요인을 완화시킴.
- 일반 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을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 PEF 운용에 있어 자율성 확대

- PEF를 M&A에 특화하는 Buyout 펀드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출자 후 1년내에 60%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투자의무비율 완화 방안을 마련(예 : 2년내 50%이상)
- 현재 PEF의 투자대상을 투자증권 등에 한정하고 있어 NPL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함.
- 투자목적회사(SPC)의 규제회피 목적의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SPCC의 출자자를 PEF로 엄격히 한정했으나 PEF 운용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PEF 이외의 자의 SPCC 지분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PEF는 환매 등을 대비한 공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의 평가 및 회계처리 방법을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함.

⑤ 투자자 이해 및 신뢰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투자자를 위한
여건조성**

- ☐ 최근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간접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므로 자산운용업계 자율로 투자자교육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
- ☐ 펀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 펀드거래비용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와 공시서류 내용과 형식을 투자자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함.
- ☐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판매인력등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산운용업계 자율로 판매인력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함.

(최원 연구원)

3. 2004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조사개요>

금감원
금융소비자
의식 조사를
실시

-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o 서울, 부산 등 5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함.
- o 주요 조사내용은 금융회사 이용실태, 금융정보 이용행태, 금융교육 인식수준, 금융분쟁 시 대응방법, 금감원 이용실태 등임.

☐ 조사결과

- o 금융회사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금융회사 안전성이며, 금융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수익률로 나타남.
- o 금융소비자는 수익성 위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나 예상손실에 대한 사전인지도는 불충분한 상태임.
- o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으며 매스컴을 통한 교육방식을 선호함.
- o 금융분쟁 발생 시 주로 주변사람 자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감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승추세임.
- o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취득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다 확충해 줄 것을 희망함.

- ☐ 금감원은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불만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금융교육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임.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 마련

- o 금융상품 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상품의 장단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함.

-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고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매체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계층별·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함.
- 금융정보제공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 금융소비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최원 연구원)

4. 자동차보험상품 규제완화 추진

자동차보험
상품 및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시행

- ☐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후 사후에 제출하는 제출상품(use & file)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음.

<현황 및 주요 내용>

- ☐ 현재 자동차보험상품 제출기준은 상품설계기준, 요율산정기준, 요율조정주기, 요율조정범위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제출상품(use & file)이 되므로 제출상품비중이 낮음('04년 : 40%).

☐ 제출기준 주요 내용

o 상품설계기준

-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에 신고한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내에서 개발

* 제출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가입경력요율, 운전자한정특약요율 및 특별요율, 성·결혼여부에 따른 요율 등

o 요율산정기준

- 요율은 경험손해율, 약관, 요율체계, 법률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산정하며,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내에서 산정

o 요율조정범위 및 조정주기

- 요율조정범위는 $\pm 25\%$ 이내이어야 하고, 요율조정주기는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내에서 조정

<개선방안>

- ☐ 제출상품이 준수해야 될 요율체계 대폭 축소

- 보험가입경력요율, 특별요율, 성·결혼여부에 따른 요율 등 요율체계 변경 시에는 사전신고하였으나, 향후에는 자유롭게 변경·판매한 후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함.
- 다만, 지역별 보험료차등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요율차등화 요소의 신규 도입 시에만 현행과 같이 신고하도록 함.
- 타사에서 판매중인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던 것을 판매 후 사후 제출하도록 개선함.
- 요율산정기준에 타사에서 판매중인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요율을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판매하고 사후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요율을 조정할 때 $\pm 25\%$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던 것을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요율조정범위 : $\pm 25\%$ 이내 → 삭제
- 요율을 조정할 때 매년 1회 이내이면 사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매분기 1회 이내이면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요율조정주기 : 연 1회 이내 → 분기 1회 이내
- ※보험료 산출시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위험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위요율제도는 폐지함.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가격자유화를
촉진**

<기대효과>

- 소비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용이해져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자유화를 촉진함.

- 시행 초기에 일부 보험회사의 M/S 확보를 위한 가격덤핑 또는 보험료 부당인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감독 강화 및 회사별 특화 상품 개발 등으로 보험회사의 체질이 보다 튼튼해지는 계기가 될 것임.

<사후감독방안>

- 제출상품에 대한 다양한 통계실적 분석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적정보험료 책정 유도 및 가격덤핑을 방지하도록 함.
-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에서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상품 공시를 강화함.
- 제출상품도 자사 및 손보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변동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자율감시를 강화함.

(최원 연구원)

5.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 보험금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가지급 보험금
제도 운영 실태
점검

- ☐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가지급 보험금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 제도가 이미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어 보험가입자의 권익도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가지급 보험금 개념>

-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미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표 1> 보험종목별 보험금 지급기일

보험종목	보험금 지급기일
자동차	지급보험금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
화 재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20영업일 이내
특종, 장기손해	신체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산손해 : 청구서류 접수 일부터 20영업일 이내

<가지급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 ☐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내(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우는 약관상 지급보험금 이내)

<표 2> 보험종목별 가지급보험금 지급기준

보험종목	보험금 지급기준
자동차	대인배상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이내 대물배상 등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이내
화 재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특종, 장기손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 ☐ 가지급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

<점검결과>

**가지급 보험금
제도 정확화
단계**

- ☐ 가지급 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 o 가지급보험금 청구는 2002년 11,096건, 2003년 15,468건, 2004년 15,63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 가지급 보험금 지급소요 기일
 - o 가지급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일은 평균 약 2.5일
- ☐ 추정보험금 대비 가지급 보험금 지급액 비중
 - o 추정보험금 대비 가지급 보험금 비중은 평균 약 43% 수준

<지도(조치)방안>

**가지급 보험금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 ☐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협회 협회지를 활용하여 가지급 보험금제도에 대한 홍보 실시
- ☐ 보험청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약관 주요내용'에 가지급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추가
- ☐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 ☐ 가지급 보험금 지급실태 모니터링 실시
- ☐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시 가지급보험금 관련 사항을 검사착안사항으로 선정·운영

(최원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1. 미국동향

<미국, FY2004 손해보험 실적>

① 재무상황

**FY2004
손해보험회사
의 재무상황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 FY2004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결산자료 발표 결과, 예기치 못한 대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재무상황을 유지함.
- o 보험료 성장폭의 둔화, 언더라이팅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전년도 손실에 대한 준비금, 환경의 악화 지속 속에서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언더라이팅 이익을 기록함.
- ☐ 2003년과는 달리 2004년에는 대재해 위험과 제도의 규제강화가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
- o 아시아의 쓰나미와 플로리다의 허리케인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인이 나타남.
 - o 석면개정법안은 미상원에서 방안이 마련되었고 TRIA(테러위험 보험법 : Terrorism Risk Insurance Act)는 2005년 말에 완료될 예정임.
 - o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Sabanes-Oxley Act에 따라, 보험산업의 수수료 수입 및 금융재보험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② 보험료

**보험료
상승률은
4.8%를 기록**

- 2004년도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03년 이후 보험료 성장률의 감소 추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도의 9.5%에 비하여 낮은 4.8% 성장률을 기록함.
- 2002년, 2003년과 마찬가지로 기업보험의 보험료 성장이 다른 종목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2002년 11.0%, 2003년 19.9%로 산업평균을 초과했던 것과는 달리 산업평균에 비하여 4.8%로 낮게 나타남.
- 재보험은 2000년 이후 하드 마켓 환경하에서 보험료 성장이 지속되어 2002년 14.7%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4년 -1.5% 성장으로 감소함.

**미국
손해보험의
합산비율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

③ 보험영업수지

-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2002년의 107.4%, 2003년의 100.1%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함.
- 2년 동안 사업비율은 비교적 변화가 없었던 반면, 손해율이 2001년 75.4%에서 2004년 59.8%로 꾸준히 하락함에 기인함.
- 2004년 합산비율은 기업보험은 99.4%, 개인보험은 95.0%로 3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냄.
- 재보험의 경우 2004년 합산비율이 104.9%로 최악의 수치를 기록함.
- 자연재해(CAT) 및 석면·환경오염배상책임(A&E)으로 인한 손실은 재보험에 있어서 약 8.3%p의 합산비율 상승을 초래함.
- 2004년도의 합산비율은 자연재해(CAT) 및 석면·환경오염배상책임(A&E) 손실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CAT) 손실은 관련 보험의 합산비율을 2003년 전년대비 3.2%p에서 2004년 3.8%p로 악화시킴.

- 2004년 석면·환경오염배상책임(A&E) 손실도 관련 보험 합산 비율을 1.0%p 악화시킴.

<표 1> 미국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합산비율	2001	2002	2003	2004(E)	증감(%p) (2004-2003)
내륙해상보험	100.3	83.9	80.9	79.4	-1.5
영업용자동차보험	116.2	102.7	95.2	93.3	-1.9
의료배상책임보험	155.0	142.5	138.2	133.3	-4.9
일반·생산물배상책임보험	130.5	137.3	115.8	110.5	-5.3
기업다중위험담보	118.7	105.0	99.9	99.0	-0.9
근로자재해보상보험	120.9	112.1	108.2	106.6	-1.6
화재보험	123.8	88.7	79.2	84.8	5.6
가정종합보험	121.3	109.2	98.2	100.9	2.7

자료 : A.M. Best

④ 투자영업수지

- ☐ 언더라이팅의 향상의 결과 2004년도 세전영업이익은 49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보험영업흑자를 기록함.
- ☐ 투자수익부분은 주식시장의 호조로 인한 수익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둔화로 약간의 상승을 기록함.
- 투자이익이 2004년 4.1%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자산에 기초하여 순투자소득은 증가함.
- ☐ 이익잉여금은 그 증가폭이 2003년 632억 달러에 비하여 다소 낮은 337억 달러를 기록하여 3,875억 달러를 기록함.

* 자료 : Aon, "Insurance overview", March 2005.

(최원 연구원)

<미국,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 미국 생명보험 시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리점 등 전통 채널에서 방카슈랑스를 비롯한 신판매채널로 채널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생명보험에서 방카슈랑스 채널 구성비는 보험료(초회보험료에 일시납보험료의 10%를 합한 금액) 기준 2% 가량이었으나,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년 2억 42백만 달러의 보험료 수입을 나타내었음.

①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001년 이후
소비자들의
방카슈랑스
인지도는 거의
유사한 수준

-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001년~2004년간 은행의 보험판매를 인식하거나 구매 결정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절반 가량의 소비자만이 은행을 통한 보험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반면, 은행의 보험판매를 인지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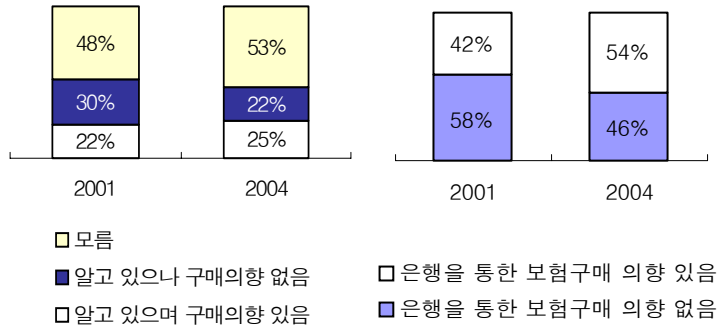
젊은 연령층의
중저소득계층,
방카슈랑스에
대한 높은
선호도

- 은행을 통한 보험구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① 18~34세의 젊은 연령대, ② 연간소득 \$25,000~\$49,999인 중저소득 계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은 은행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연령층의 소비자들은 은행에 대한 진부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함.

- 은행은 보험에 대한 지식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생명보험 등 판매를 집중하는 상품을 배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방카슈랑스 인지도 관련 설문 결과



**방카슈랑스
인지여부에
따라
보험구입시
채널선호도
상이**

- 생명보험 상품 구매시 선호하는 채널로 소비자들은 보험회사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은행은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음.
- 은행의 보험판매 인지 여부에 따라 소비자들 간의 응답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은행의 보험판매를 인지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은행에 대한 채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음.
 - 은행의 보험판매를 인지하는 소비자들은 구매시 선호 채널로 은행이 12%로 방카슈랑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응답비율 3%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개발, 언더라이팅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은 상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소비자가 증가할수록 은행의 보험판매를 선호하고 있음.

② 시사점

- 이러한 설문 결과를 감안할 때, 은행을 통한 마케팅에서는 보다 경쟁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임.
- 은행은 여전히 금융서비스 거래 기관으로 간주되고 소비자들은 방카슈랑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상품 제공으로만 보험 판매가 가능할 것임.

①소비자에
대한
방카슈랑스
인지도 전달
②총체적
마케팅 전략
구사,
③보험회사와의
상호 브랜드
구축 등 성공적
마케팅 필요

- 은행이 지속적인 생명보험 판매 성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은행을 통해 생명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여야 할 것임.
- 2001년 절반 가량의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생명보험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3년이 지난후에도 인지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 은행은 총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여야 함.
-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은행의 보험판매에 회의적인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고 중산계층 소비자 등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임.
- 은행은 보험회사와의 관계 유지 및 상호 브랜드 구축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시장에서의 좋은 출발을 하여야 할 것임.
- 전통적으로 은행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소비자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구매하게 됨.
- 방카슈랑스 시장에서의 성패는 제휴 관계인 보험회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은행의 선택이 강조됨.

* 자료 : LIMRA, "Bancassurance Who's Listening", LIMRA's MarketFacts Quarterly, Spring 2005.

(조혜원 선임연구원)

2. EU동향

Datamonitor,

영국

건강보험시장

분석보고서

발표

<영국, 2004년 건강보험 동향>

□ Datamonitor사는 영국의 민영의료보험(PMI), 의료자금계획, 치과 치료보험 등의 3개시장에 관해 상세하게 조사 분석한 조사 분석하고 2009년까지 전망한 보고서 “UK Health Insurance 2004”를 발간함.

① 2003년 민영의료보험 동향

□ 2003년 민영의료보험가입자수는 감소했으며, 개인 및 단체시장 각각 0.7%, 0.6% 감소했음.

2003년

민영의료보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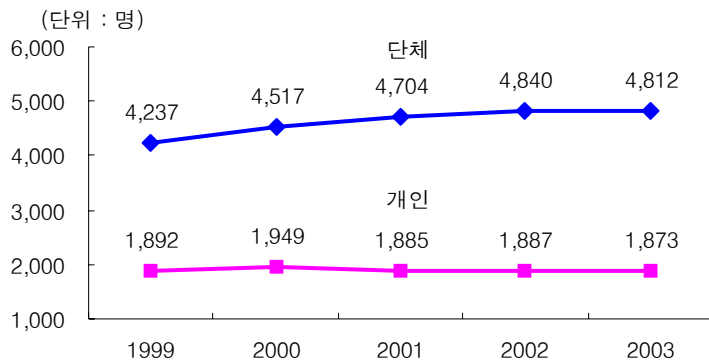
입자수는 개인,

단체 모두

감소함.

○ 개인 민영의료보험시장은 가입자수가 14년에 걸쳐 감소하는 추세이나, 단체시장의 가입자수가 감소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임.

<그림 1> 민영의료보험가입자수 추이



자료 : Datamonitor, “UK Health Insurance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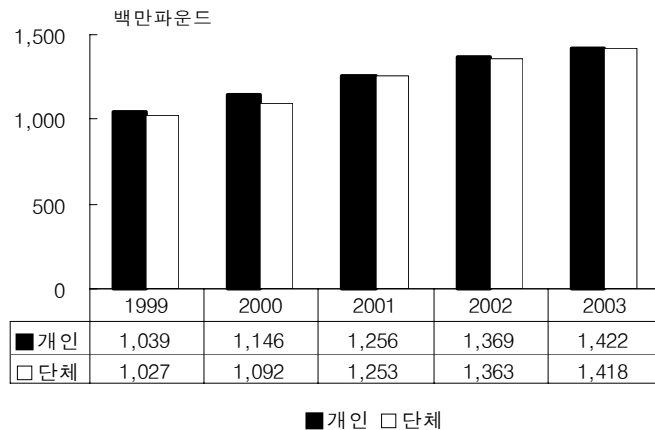
□ 2003년 보험계약자수는 근소하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는 단체 계약자수가 소폭 증가한데 기인함.

- 반면, 개인보험계약자수는 소폭 감소했으며, 개인보험계약자수는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에 의함.

개인의료보
험의
보험료는
4년간 매년
10.1%
상승함.

- 개인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매년 평균 10.1%상승하였으며, 단체보험의 경우는 매우 느리게 상승함.

<그림 2> 민영의료보험 경과보험료 추이



자료 : Datamonitor, "UK Health Insurance 2004".

- 2003년 총경과보험료는 4% 성장했으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각각 비슷하게 성장함.
-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계약자수의 심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였는데 이는 단체보장과 개인보장의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의료보험은 2003년 2년째 보험수지차익을 보았으며, 이는 특히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임.

<표 1> 1999~2003 건강보험 보험수지결과

(단위 : 백만파운드)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원수보험료	2,056	2,422	2,709	2,570	2,522
발생손해액	1,415	1,637	1,993	1,903	1,892
수수료 및 비용	672	659	790	602	564
충당금적립	77	172	19	15	-52
총유출액	2,164	2,468	2,802	2,520	2,404
보험영업수지	-108	-46	-93	49	118

의료자금계획
가입자수는
단체시장의
성장으로 증가

② 2003년 의료자금계획 동향

- 2003년 의료자금계획(Healthcare cash plans)의 가입자수는 2002년보다 2.8% 증가한 약 7.3백만 정도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단체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임.
 - 7.3백만 중 상당수는 단체보험 가입자이며, 기여금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특징이 있음.
- 의료자금계획의 연간 보험료수입은 2003년 약 6억 17백만으로 추산되면 2002년에 비해 2% 증가한 것임.
 - 의료보험과 의료자금계획은 보장하는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수입은 서로 민감하지 않으며, 의료자금계획은 PMI와 달리 비용증가율이 높은 치료를 담보하지 않음.

③ 2003년 치과치료보험 동향

- 치과치료보험의 가입자는 2003년 1.38백만명, 수입보험료는 약 262백만 파운드로 추산되며, 동 보험의 보급에는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함.

(김진익 선임연구원)

3. 일본동향

<일본, FY2004 손해보험회사 실적>

**FY2004 일본
9개 손보사,
수보기준 0.4%
증가**

□ 일본, 保険毎日新聞에서 FY2004 9개 손해보험회사의 누계 실적 및 2005년 3월 당월 실적을 분석, 정리하였음.

□ FY2004 9개 손보사 누적수입보험료는 6조 9,077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였음.

○ 자동차보험, 자배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감소되었으나, 기타 종목의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여 손해보험 전체로는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였음.

**자동차보험,
-1.3% 성장
3년간 감소세**

○ 종목별로는 상해보험이 제3분야 상품의 판매 호조로 6.3%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자동차보험은 FY2004 누계 수입보험료 3조 3,678억엔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여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수입보험료 증가를 나타낸 회사로는 일본 흥아손보 1개사만이 0.6%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당월 실적으로는 동경해상이 4월 이후 처음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음.

**자배책보험,
-1.0% 성장**

○ 또한, 손보재팬, 아이오이 손보도 1월부터 증가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 자배책보험은 누계 수입보험료 9,822억엔으로 1.0% 감소하였으며, 자동차보험 신채널을 통한 판매로 삼정주우해상, 일신화재, 아이오이 손보 3개사만 실적이 증가하였음.

○ 3월 당월실적은 4월 이후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었음.

□ 화재보험은 누계 수입보험료 1조 393억엔, 2.3% 증가하였음.

**화재보험,
지진보험 가입
확대로 2.3%
증가**

- 일본홍아손보와 닛세이동화손보를 제외한 7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잇따른 지진으로 인한 지진보험 가입자 증가가 화재보험 판매 확대에 기여하였음.

<표 1> FY2004 일본 9개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단위 : 백만엔, %)

구분	2005.3월	누계
자동차보험	392,547	3,367,806
성장률	-0.6	-1.3
자배책보험	130,511	982,238
성장률	2.1	-1.0
화재보험	128,795	1,039,298
성장률	-0.5	2.3
특종보험	84,241	720,811
성장률	-2.1	2.8
상해보험	42,841	534,201
성장률	5.9	6.3
해상보험	26,254	263,362
성장률	4.0	2.7
손해보험 전체	805,198	6,907,721
성장률	0.2	0.4

**특종보험,
2.8% 성장**

- 특종보험의 수입보험료 누계 실적은 2.8% 증가한 7,208억엔을 기록하였음.

- 닛세이同和損保와 富士火災를 제외한 7개사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누계 실적으로는 損保재팬이 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당월 실적으로는 共英火災가 10.7% 증가하였음.

**상해보험, 6.3%
최고 성장률
기록**

- 상해보험의 누계 수입보험료는 5,342억엔, 6.3%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의료 및 제3분야상품의 판매 증가가 상해보험 성장에 기여하여 손해보험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함.

**해상보험,
중국교역으로
2.7% 성장**

- 의료보험인 'ViV 종신'과 해외여행상해보험의 판매호조로 삼성 주우해상이 10.1% 성장하였으며, 당월 실적으로는 넷세이동화 손보가 21.3%, 삼성주우해상이 10.0% 등 2개사가 증가하였음.
- 해상보험 FY2004 누계 수입보험료는 2,634억엔으로 2.7% 성장하였음.
- 중국연계무역의 물동량이 활발해지거나 세계적인 해운수요의 증대 등으로 8개사의 수입보험료 실적이 증가하였음.

* 자료 : 保険毎日新聞, "9社合計, 0.4%増に", 2005.4.18.

(조혜원 선임연구원)

<일본, 보험계약자보호제도 개선 추진>

**2004년말 일본
보험계약자보호
제도 개선**

- 현행 보험계약자보호제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파산 등에 따른 보상방법이나 수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업무, 보상에 관한 비용 부담방법 등 제도 개선(안)이 제기됨.
- 동 제도는 1988년에 창설된 이후 생명보험회사 6사, 손해보험 회사 2사가 파산하여 동 제도가 적용되었음.

① 보험종목별 보상방법

**손해보험회사
파산후
일정기간
보험금 전액
지급보증으로
개선**

- 손해보험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회사 파산후 일정기간 중의 보험사고발 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전액 보증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음.
- 현행 제도는 파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유지 종속을 중시 하여 책임준비금 등의 90% 보상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 고 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10%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실손보상원칙에 어긋남.

- 또한, 대부분 단기계약인 손해보험의 특성상 회사 파산시 고객기반이 급속히 축소될 우려가 있음.

**손보 종목별
보상 폐지, 개인
및 소규모기업
계약자를 보호
대상으로 변경**

-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종목별 보상여부 구분을 폐지하고 일반적으로 정보수집능력 등이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개인 및 소규모기업 등의 보험계약자를 보상대상으로 정함.
- 생명보험, 제3보험의 경우 보험종목에 상관없이 전부 보호대상인 반면,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만이 보상대상이며, 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은 동 제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손보사 인수
제3분야 보험은
개선(안) 적용
예외**

- 제3분야보험
- 손해보험회사에서 인수한 제3분야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기의 개선(안) 적용의 예외로 함이 타당함.
-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3분야의 특성상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장기계약으로 파산 발생 후에도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적음.

**적립형보험의
보상부분은
일반 손보와
동일 적용**

- 적립형보험
- 적립화재보험, 적립상해보험 등 적립형 보험은 주로 손해보험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적립부분과 보상부분을 분리하여 계약 유지존속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즉, 적립부분은 재가입 곤란성의 문제가 없고 타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손해보험에서의 보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함.
- 생명보험
-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사망보장이나 질병보장 등 보장부분과 적립형보험에서의 보장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분리하여 상기에서의 보상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 생명보험에서도 각 보험종목의 성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유지존속을 중시하여 보장부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

**보상물에
예정이율인하
효과 반영**

② 보상의 대상

- ☐ 보험회사 파산처리 과정에서 예정이율의 인하가 단행될 경우, 예정이율 인하효과를 포함하여 보험금액 기준으로 보상률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o 현행 제도에서는 책임준비금의 90% 수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파산처리에 있어서 예정이율의 인하가 단행될 경우 보험계약자에 따라서 보험금액의 삭감률이 크게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생명보험,
제3분야보험은
예정이율인하
및 보험계약자
책임 등의
이유로 보상을
인하**

③ 보상의 수준

- ☐ 현행 제도에서는 90% 수준의 보상이 보증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의 정보공시 발전 등에 의해 종래와 달리 보험계약자의 자기책임을 묻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명보험이나 제3분야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o 또, 보상률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예정이율이 높은 계약에 대해서는 향후 예정이율의 인하를 감안하고 보험계약자간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보상수준을 다른 보험종목보다 인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보험계약자보호
기구의 업무
개선**

④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업무

- ☐ 기본적 역할
- o 보험회사의 파산처리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적절하게 도모되기 위하여 신중한 운영이 요구됨.

- 이러한 관점에서 중립적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고 예정이율 인하, 조기해약공제에 관한 운영기준의 명확화 등에 기구의 재량을 제한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o 또한, 기구에 의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개시를 충실히 수행하며, 이익상반에 의한 피해발생을 방지, 기구운영에 대한 규율 수행도 중요시되고 있음.

**기존계약
인수에 따른
수지악화
방지방안 마련**

☐ 보험계약의 인수

- o 파산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함에 있어서 기구가 직접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수지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o 기구는 일반 보험회사와 달리 신규 보험모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보험수지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예정이율 인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즉, 기구에는 일반 보험회사의 경영파산요건 등 적용이 곤란하고 보험수지가 악화될 경우에는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 인수를 행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업무에 필요한 비용 각출방법

**기구운영비용
각출방법은
사후각출제도로
변경**

- o 기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각출에 대해서는 파산발생에 앞서 자금을 적립하는 사전각출제도를 두고 있음.
- 생명보험분야에는 과거 파산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후각출이 이루어졌으며, 운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또, 사전각출제도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사후각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동 제도
관련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계약자이해도모
필요

⑤ 보험계약자보호 비용부담 방법

☐ 파산처리비용 부담방법

- 보험계약자보호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보험회사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 명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료 : 金融廳 “保險契約者保護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2004.12.

(조혜원 선임연구원)

<일본, 아이오이손보 렉서스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일본, 아이오이
손보사,
고소득계층
시장 확보를
위해
렉서스자동차보
험 개발

☐ 아이오이(IOI)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고소득층의 시장 확보를 선점하기 위하여 ‘렉서스’ 브랜드 전용의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하여 8월부터 판매할 예정임.

- 즉, 보상과 편의성이 업그레이드 된 프리미엄급 ‘렉서스 자동차보험 플랜’을 개발하고, 제조회사와의 판매제휴를 체결하여 도요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동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
- 이와 같은 특정 자동차 브랜드의 보험상품 개발은 향후 중 소형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벤츠, BMW 등의 고급 외국승용차 브랜드상품 개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고 소득층에 대한 시장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동 상품은
중소형손보사의
생존전략으로
평가

☐ 프리미엄급으로 개발된 ‘렉서스 자동차보험 플랜’은 성숙된 일본의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대형 손해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형 손해보험회사의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음.

**고보험료
상품인 반면,
특약을 통해
고소득층의
고보장니즈
반영**

- 프리미엄급 상품개발은 기존 시장참여자들과의 가격경쟁이 아니라 고품질을 무기로 한 상품차별화 전략으로 성숙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신규 진입자에 유리한 장점이 있음.

□ ‘렉서스 자동차보험 플랜’의 주요 내용

- ‘렉서스 자동차보험 플랜’은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고액인 반면, 특약가입을 통해 고소득층의 고보장니즈를 반영한 보험상품임.
- 동 상품은 아이오이손해보험회사의 주력 자동차보험상품인 ‘툽 플랜’ 등에 10가지의 신규 특약을 패키지로 개발된 상품으로 편리성이 확대됨.
 - ‘렉서스 오너즈 데스크’서비스 : 도요타자동차가 운영하는 긴급지원서비스 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사고시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 ‘주행거리연동형자동차보험’ : 렉서스 자동차에 탑재된 ‘자동차 단말기 서비스’를 통하여 주행거리를 파악하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음.
 - 도요타파이낸스의 렉서스 금융상품에 의한 다양한 보험료 납입 방식의 제공

□ ‘렉서스 자동차보험 플랜’ 주요 특약

- ‘렉서스 자동차보험 플랜’은 아래의 신규특약 전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⑤, ⑨, ⑩의 특약은 옵션특약으로 가입하지 않는 것도 가능함.
 - ① 새차제공 특약 : 사고 및 홍수 등으로 전손된 새차에 대해 동일한 새차를 현물로 제공
 - ② 동일차량 교체시 등록제비용 특약 : 수리비 50만엔 이상 사고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등록비 등의 제비용 전액 보상

- ③ 고급차 대차제공 특약 : 사고에 의한 수리기간중 또는 새차를 제공할 경우 대기기간동안 고급승용차 렌트비용 제공
- ④ 도난시 열쇠 교환비용 특약 : 열쇠를 도난당한 경우 열쇠 교환 비용 등을 보상, 자택 열쇠를 함께 도난당한 경우 자택열쇠 교환비용까지 보상(10만엔 한도)
- ⑤ 도난 방법설비 설치비용 특약 : 자택에서 차를 도난당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장치(무인카메라 등) 설치비용을 보상
- ⑥ 긴급 지원 고액보상 특약 : 원격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임시 숙박비(3만엔 한도)나 귀가 교통비(5만엔 한도) 등을 보상. 또한, 사고지에서 수리 후의 배송비용이나, 사고에 의한 각종 예약취소 비용까지 보상
- ⑦ 탑승자 상해 고액보상 특약 : 사고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입원시 고액 입원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보험금을 보상
- ⑧ 장애차량 제공특약 : 사고로 중증 후유장해시 장애차량을 현물로 제공
- ⑨ 차내 휴대품 보상 특약 : 골프가방 등 자동차내 개인 소유 물의 손해 등을 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
- ⑩ 법률 보호특약 : 자동차 사고 외에 생활배상 사고에 대한 법률비용 제한 제공
 - 타인의 배상사고(무제한 보상)
 - 타인에 의한 수탁물의 배상 사고(10만엔 한도)
 - 자택에서의 방문객 상해 위로금(50만엔 한도)
 - 피해사고시의 변호사비용 등(300만엔 한도)

<표 1> 렉서스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특약 명칭	소비자 장점
새차제공 특약	애착이 있는 동일 차종의 신차가 캐슈레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안심·편리(현금및현금등가물 제공은 업계최초)
동일차량 교체시 등록제비용 특약	등록 제비용의 자기부담없이 가능(실비 전액 보상은 상업중심지 최초)
고급차 대차제공 특약	고급차오너에 어울리는, 3000cc의 대차 이용 가능(최장 90일의 연장, 3000cc클래스의 제공은 상업중심지 최초)
도난시 열쇠 교환 비용 특약	차량 도난 방지비용 보상등 시큐리티 대책 지원
도난 방법설비 설치비용 특약	주택에서의 도난 방지비용이 보상 등 시큐리티 대책 지원(최대 50만엔 보상은 상업중심지 최초)
긴급 지원 고액 보상 특약	호텔에의 숙박이나 1등차 등의 이용이 가능 (고액 보상 형태는 상업중심지 최초)
탑승자 상해 고액 보상 특약	만일의 입원시의 차액배드 이용등에의 대응을 도모(3배 보상 형태는 상업중심지 최초)
장애 차량 제공 특약	고객의 요망에 응한 복지 차량이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안심·편리 (현금및현금등가물 제공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업중심지 최초)
차내 휴대품 보상 특약	골프·레저용품의 손해 등, 일상의 사고를 폭넓게 극진하고 보상(최대 50만엔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업중심지 최초)
법률 보호 특약	법적 트러블에의 다면적인 보상 확보(위문금 등의 폭넓은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업중심지 최초)

* 자료 : 아이오이손보 홈페이지, 2005.6.

(이상우 선임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3	CY2004				CY2005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4.1	5.3	5.5	4.7	3.3	2.7
경상수지	7,263	6,131	7,030	7,098	7,354	6,095
수 출	56,901	59,299	63,975	61,634	68,937	66,790
수 입	49,922	52,798	55,270	54,708	61,688	60,414
실업률	3.4	3.8	3.3	3.4	3.4	3.9
금리	국고채(3년)	4.82	4.50	4.24	3.53	3.28
	회사채(3년)	5.58	5.30	4.84	4.03	3.72
소비자물가지수	111.7	113.4	114.2	115.6	115.5	117.8
환율	원/달러	1,192.6	1,146.6	1,155.5	1,151.8	1,035.1
	엔/달러	106.99	105.84	108.69	110.9	103.76
종합주가지수	810.71	880.50	785.79	835.09	895.92	965.68
외환보유고	155,352	163,557	167,030	174,448	199,066	204,626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3	CY2004				CY2005
	4/4	1/4	2/4	3/4	4/4	1/4
보 험	88,743	48,649	64,808	71,449	94,002	55,643
생명보험	74,824	37,604	48,549	54,862	75,500	42,277
손해보험	13,919	11,045	16,259	16,587	18,502	13,366
은 행	189,814	-67,109	37,239	-1,871	-28,410	-20,297
일반계정	221,476	-11,707	40,699	19,734	-13,394	-30,494
신탁계정	-31,662	-55,402	-3,460	-21,605	-15,016	10,197
증 권	5,843	-5,145	5,049	-1,427	-11,172	16,898
투 신	-178,020	170,435	-14,380	136,801	148,323	52,889
총 금	-38,056	-20,816	7,090	940	-18,256	19,416

주 : 1) 보험회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 존 보 험	보험료	37,028	28,192	115,676	28,266	31,173	32,542	29,385	121,366
	성장률	56.8	16.0	26.5	18.3	17.4	-12.1	4.2	4.9
	구성비	23.9	23.4	23.0	23.3	24.6	20.9	21.9	22.6
사 망 보 험	보험료	57,714	60,047	229,359	61,844	63,199	64,497	65,798	255,338
	성장률	7.0	9.7	8.3	11.2	12.9	11.8	9.6	11.3
	구성비	37.3	49.9	45.5	51.0	49.9	41.4	49.1	47.5
생사혼합 보험	보험료	26,139	21,916	94,505	20,028	20,264	20,279	19,076	79,646
	성장률	-9.5	-18.7	-14.4	-14.6	-11.8	-22.4	-13.0	-15.7
	구성비	16.9	18.2	18.8	16.5	16.0	13.0	14.2	14.8
변액보험	보험료	3,210	2,356	7,621	2,785	3,293	6,256	11,456	23,789
	성장률	372.6	122.5	285.7	202.8	189.9	94.9	386.3	212.2
	구성비	2.1	2.0	1.5	2.3	2.6	4.0	8.6	4.4
개 인 보험계	보험료	124,091	112,510	447,161	112,923	117,929	123,574	125,714	480,140
	성장률	15.8	5.1	7.6	8.7	10.6	-0.4	11.7	7.4
	구성비	80.1	93.6	88.7	93.2	93.1	79.4	93.9	89.3
단 체 보 험	보험료	30,836	7,725	56,764	8,262	8,769	32,158	8,177	57,366
	성장률	-19.6	-10.3	-24.5	-18.3	8.3	4.3	5.8	1.1
	구성비	19.9	6.4	11.3	6.8	6.9	20.7	6.1	10.7
전 체	보험료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성장률	6.5	3.9	2.7	6.3	10.4	0.5	11.4	6.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15,399	17,556	60,247	15,433	15,680	18,243	21,794	71,150
	증가율	22.9	6.8	14.5	13.4	14.6	18.5	24.1	18.1
	지급률	41.6	62.3	52.1	54.6	50.3	56.1	74.2	58.6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19,077	20,773	74,428	20,345	21,657	23,811	24,863	90,676
	증가율	34.7	30.7	34.4	21.2	21.7	24.8	19.7	21.8
	지급률	33.1	34.6	32.5	32.9	34.3	36.9	37.8	35.5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28,627	26,875	120,173	25,356	23,603	25,595	27,781	102,335
	증가율	16.1	-24.0	15.4	-24.0	-24.6	-10.6	3.4	-14.8
	지급률	109.5	122.6	127.2	126.6	116.5	126.2	145.6	128.5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206	324	706	399	404	635	1,467	2,905
	증가율	757	2382	1589	468.5	283.1	207.9	353.0	311.6
	지급률	6.4	13.7	9.3	14.3	12.3	10.2	12.8	12.2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63,310	65,528	255,554	61,534	61,344	68,284	75,905	267,067
	증가율	23.2	-3.2	20.4	-3.6	-2.5	7.9	15.8	4.5
	지급률	51.0	58.2	57.2	54.5	52.0	55.3	60.4	55.6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6,793	17,103	61,840	11,101	10,492	11,948	15,618	49,159
	증가율	-45.8	-1.5	-24.6	-27.5	-17.0	-28.9	-8.7	-20.5
	지급률	54.5	221.4	108.9	134.4	119.7	37.2	191.0	85.7
전체	지급보험금	80,103	82,631	317,394	72,635	71,836	80,232	91,522	316,226
	증가율	-2.8	-2.9	7.9	-8.2	-4.9	0.2	10.8	-0.4
	지급률	51.7	68.7	63.0	59.9	56.7	51.5	68.4	58.8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사업비	4,187	3,564	14,118	3,377	3,623	3,725	5,851	16,576
	증가율	9.1	-0.6	-0.2	9.0	10.8	-11.0	64.2	17.4
	사업비율	11.3	12.6	12.2	11.9	11.6	11.4	19.9	13.7
사망보험	사업비	15,913	16,504	61,705	15,836	16,112	16,208	20,444	68,599
	증가율	0.1	8.5	2.2	9.0	9.1	1.9	23.9	11.2
	사업비율	27.6	27.5	26.9	25.6	25.5	25.1	31.1	26.9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2,188	2,009	7,647	2,078	3,176	4,291	5,443	14,988
	증가율	-6.0	7.0	-5.8	21.4	82.6	96.2	170.9	96.0
	사업비율	8.4	9.2	8.1	10.4	15.7	21.2	28.5	18.8
변액보험	사업비	-	-	-	-	-	-	-	-
	증가율	-	-	-	-	-	-	-	-
	사업비율	-	-	-	-	-	-	-	-
개인보험계	사업비	22,288	22,077	83,470	21,291	22,910	24,225	31,737	100,164
	증가율	1.0	6.8	1.0	10.1	15.9	8.7	43.8	20.0
	사업비율	18.0	19.6	18.7	18.9	19.4	19.6	25.2	20.9
단체보험계	사업비	714	750	2,732	572	605	706	1,203	3,087
	증가율	2.2	1.9	6.4	-6.9	-7.3	-1.1	60.4	13.0
	사업비율	2.3	9.7	4.8	6.9	6.9	2.2	14.7	5.4
전체	사업비	23,002	22,827	86,202	21,863	23,516	24,931	32,941	103,251
	증가율	1.1	6.6	1.2	9.6	15.1	8.4	44.3	19.8
	사업비율	14.8	19.0	17.1	18.0	18.6	16.0	24.6	19.2

-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692	3,160	763	664	825	685	2,937
	성장률	-7.7	-1.8	-7.5	-12.8	-6.4	-1.0	-7.1
	구성비	1.3	1.5	1.4	1.2	1.3	21.2	1.3
해 상	보험료	1,310	5,242	1,263	1,410	1,263	1,135	5,071
	성장률	-7.6	-6.5	-9.5	1.8	9.7	-13.3	-3.2
	구성비	2.5	2.5	2.3	2.5	2.0	2.0	2.2
자동차	보험료	19,693	79,606	20,851	21,528	21,991	20,838	85,208
	성장률	7.3	0.6	10.1	4.2	8.3	5.8	7.0
	구성비	37.2	37.2	37.4	37.7	35.3	36.4	36.7
보 증	보험료	2,475	9,419	2,353	2,179	2,218	2,268	9,018
	성장률	-2.2	0.6	-2.9	-3.6	-1.8	-8.3	-4.3
	구성비	4.7	4.4	4.2	3.8	3.6	4.0	3.9
특 종	보험료	3,933	18,073	5,083	5,088	5,691	4,507	20,369
	성장률	13.3	8.0	11.8	14.2	10.7	14.6	12.7
	구성비	7.4	8.5	9.1	8.9	9.1	7.9	8.8
해외 원보험	보험료	173	628	208	214	188	186	796
	성장률	13.3	11.4	51.9	38.4	15.3	7.0	26.7
	구성비	0.3	0.3	0.4	0.4	0.3	0.3	0.3
장 기	보험료	22,126	85,794	22,795	23,553	24,710	25,295	96,353
	성장률	6.5	7.1	9.2	12.2	13.3	14.3	12.3
	구성비	41.8	40.1	40.9	41.3	39.7	44.2	41.5
개 인 연 금	보험료	1,748	6,873	1,746	1,680	1,695	1,679	6,799
	성장률	0.4	1.3	2.5	-1.5	-1.3	-3.9	-1.1
	구성비	3.3	3.2	3.1	2.9	2.7	2.9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751	4,949	686	715	3,642	579	5,622
	성장률	-14.6	12.4	113.2	84.3	4.4	-22.9	13.6
	구성비	1.4	2.3	1.2	1.3	5.9	1.0	2.4
계	보험료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57,172	232,173
	성장률	5.6	3.8	9.0	8.1	9.3	8.1	8.6

주 : 1)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1.7	52.7	58.8	54.8	56.4
	사업비율	56.0	57.2	54.7	55.6	55.0
	합산비율	117.7	109.8	113.5	110.4	111.4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7.7	61.3	51.3	49.3	49.5
	사업비율	36.4	34.2	31.5	32.7	30.0
	합산비율	94.1	95.5	82.8	82.0	79.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6.7	71.6	72.3	72.7	72.7
	사업비율	31.3	30.3	31.2	31.8	32.2
	합산비율	108.0	102.0	103.5	104.5	104.9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4.1	46.6	27.6	21.9	25.3
	사업비율	10.3	6.8	16.6	16.2	20.5
	합산비율	54.4	53.4	44.2	38.1	45.8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7.8	43.1	47.4	46.5	52.0
	사업비율	23.2	22.1	22.5	25.0	26.5
	합산비율	80.9	65.2	69.9	71.5	78.6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7.5	13.2	44.3	49.4	41.0
	사업비율	80.5	22.2	83.0	89.8	80.2
	합산비율	127.9	35.4	127.3	139.2	121.2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72.4	85.9	86.6	87.1	87.9
	사업비율	19.4	15.9	15.8	15.7	15.4
	합산비율	101.9	101.7	102.4	102.8	103.3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21.8	117.9	118.4	118.1	123.8
	사업비율	9.7	9.9	10.4	10.4	10.5
	합산비율	131.5	127.8	128.8	128.5	134.3
전 체	경과손해율	77.6	76.1	76.6	76.6	77.7
	사업비율	24.3	21.8	22.6	23.0	23.2
	합산비율	101.9	97.9	99.2	99.6	100.8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점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키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2005-1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6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점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 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8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2004.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4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자동차보험본부, 2004-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자동차보험본부, 2004-12
2005- 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생명보험본부, 2005-3
2005- 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보험연구소, 2005-4
2005- 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자동차보험본부, 2005-3
2005- 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보험연구소, 2005-6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계간 _____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 간행물별 년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5년 여름호(통권 34호)

2005년 7월 15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한컴닷컴
전화 (02) 2277-7311

정가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